

장 준비로 경황도 없었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좀더 낮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12월 10일에 판사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가보았더니, 이 역사관보다 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단들은 같이 모일 수 있는 회의실조차 하나 없었고 자리 한 번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옥 : 연구원들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위트룸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 공동대표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윤옥 : 12월 11일 공청회할 때 지역의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시현 : 딱 한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12월 10일, 기소가 모두 끝난 뒤 해방감에 젖어 모였는데 필리핀에 대해서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서기관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김윤옥 : 조시현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위원회법률분과에서 준비한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시현 : 검사단에서 주로 한 작업은 현장을 완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99년 봄부터 한일 간의 초안작성작업이 즉 있었고, 그 안에 격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진행의 대원칙만 정한 간결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본은 유고 재판소 규정이나 뉘른베르크 현장을 감안해 목격한 문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1999년 가을에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의견 차를 줄이고 필요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는데 상해에서 대부분 소요되었고, 대만에서 일부 소요되었습니다. 실제 각 국 검사단들의 활동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 공조가 이루어져 각 피해국을 검사들이 순방기로 하고 진상조사도 하기로 했으나, 잘 안되고 몇 번 모이는 검사단 회의에서도 기소장 작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 사전준비작업이 잘 안되어 법정 마지막까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회회는 저희가 관여할 바 아니나, 헤이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개방적 분위기에서 좋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법정이므로 판사와 검사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같이 고민하며 법정을 짚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윤옥 :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정 준비과정에 대한 언급이신 것 같은데, 본 법정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정의 무대배치는 어떠했습니까? 서기관이 중앙에 앉고 양 옆에 판·검사가 앉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시현 : 그것은 12월 7일에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결정과정에 참여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신혜수 : 처음에, 법정배치는 필리핀이 주도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본에게로 넘어간 것 같더군요.

김윤옥 : 할머니와 검사단이 중앙에 앉는 것이 무리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정진성 : 판사단이 법정의 형식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시현 : 저는 시종일관 반대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 법정에서는 국가 책임이므로, 아무 얘기나 다 쓰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형사법정이므로 엄격한 통제를 요구했고, 그것이 편하게 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요.

윤정옥 : 이 법정은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상 검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판사들이 검사를 만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법정의 엄격성과 형식과 내용을 강조해 검사가 로브를 입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김윤옥 : 12월 8일 오전에 남북이 공동기소를 한 것에 대해 기자들도 흥분하고,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언급해 주십시오.

김혜원 : 할머니 증언에 있어서는 실패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강렬하게 증언해 많은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정숙 : 사실 증언 부분에 있어 제가 초반에 매우 움츠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 비디오도 많이 방영하고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쪽의 문필기 할머니 증언이 너무 약식으로 진행되어서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양현아 : 증언이 약식으로 된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기소가 갖는 형식과 관련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처럼 증언을 중심으로 내레이션을 하기보다는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추상화, 이론화되어 증언 부분이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한 증언을 합치다보니 필름도 너무 많고 증언 시간도 안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정숙 :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자르다보니 부담도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현아 : 그러다보니, 할머니들이 위축된 상태로 마음 편히 증언하지도 못한데다 법정의 처음 시작이라 긴장한 탓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신혜수 : 법정 구조가 좌석문제에 있었듯이 판사 입장 시 기립, 착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의 형식을 강조해 위엄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할머니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볼 때 가부장제의 부정적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현아 : 장소가 가지는 통신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이메일, 팩스, 복사기 등 시설설비가 미비해서 실무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발표 전까지도 제 발표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국 설비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장완익 : 판사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법정이냐가 현장에 다 녹아있어서, 좀더 유연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판사도 거기에 맞추어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맞춰 그렇게 끌려갔어야 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윤정옥 : 문제는 우리의 초대장을 받고 몇 명의 판사가 와주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섯이 응했는데 1명은 중간에 돌아가서 4명이 남았기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윤옥 : 다음은, 위안부 문제가 현재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무력갈등 하에서의 국제 공청회'를 청중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김혜원 : 저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문제라고 비난받았는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문제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온 할머니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진성 : 하지만, 한국 참가자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너무 부각되어 식민지 문제가 축소되고 위안부 문제를 전시 하 여성의 문제로만 부각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공청회를 판결 전에 했느냐, 결국 판결시간이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신혜수 :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과거의 문제가 현재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의 바자지가 식민지 문제만 언급하면 옛날 흑인문제까지 들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그 팀하고 만나, 3월 8일 뉴욕의 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왔는데, 아직 최종판결이 안나왔습니다. 어떤 점을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판결내용 중에 포함시킬까 말까 하는 문제가 귀국문제에 유골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와, 중국의 하군자 할머니 귀환문제에 관한 것으로 그 상세한 내용을 영어판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할머니들이 기금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김윤옥 : 국제공청회를, 한국 정대협과 공동주최로 해서 같이 주도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양현아 : 저는 왜 공청회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법정을 주최한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지속된다면 최종판결문에도 시각의 연결성이 있으므로 지금 지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공청회 문제가 현재와 연결되고 보편적으로 바라본 점에서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온 군위안부 문제란 아주 특정한 문제를 다소 희석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각 국의 맥락에서 강간이나 피해의 성격이 다른데, 각 국 간의 차이를 젠더의 문제, 즉 여성에 대한 폭

력이라는 틀로 그 차이를 희석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국이고 이 법정이 피해자 중심의 피해국이라고 한다면, 저희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판결에도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식민주의 범죄를 노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라는 차원을 부각시킨 바우넷 재판이나 일본 페미니즘의 중심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종 판결문에서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수 : 저는 내설리즘과 페미니즘 사이의 문제를 정대협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제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식이 다릅니다. 아시아 피해국과 국제여성인권운동이 연대하면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희석화됩니다.

정진성 : 내셔널리즘이나 페미니즘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성의 문제로만 봐야 합니다.

신혜수 : 예를 들면, 아시아 다른 국가는 식민지였던 적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진성 :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식민성이나 페미니즘 등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국제연대에서는 식민성의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북한에서 처음부터 전시 하의 여성문제, 젠더문제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양현아 :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페미니즘에 내재한 인종주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서구 내지는 백인중심 페미니즘의 틀에 있고 신혜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페미니즘과 연대한다고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백인의 문제였다면 남북문제나 환경문제에서 젠더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다수 일본의 판사나 검사를 맡은 법률가들이 페미니스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 자신들은 인종이나 동아시아 문제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참 반갑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미니즘이 젠더만 말하는 것이 아닌데, 국제연대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 안에 내재한 또 다른 인종주의 문제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로 젠더를 중심으로 한 백인 페미니즘의 시각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신혜수 :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고 한 계기는 보스니아문제에서 비롯해 르완다, 소말리아나 국제적으로 스리랑카, 타미타 등 내전이 있는, 국제적으로 활발하니까 맞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현아 선생님이 내셔널리즘과 페미니즘의 문제를 느낀다고 한다면 한국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해야만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현아 : 유고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범죄라 했을 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것

을 심층적으로 보려면 동아시아의 맥락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윤옥 : 이것은 한국 정대협이 더 이론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조시현 : 위안부 문제가 인종주의에 페미니즘이 붙어서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인종주의 문제로 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내의 인종주의 문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계기도 없었습니다. 세계인종주의회의가 올 봄에 있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읍저버라도 참석해서 파트너로 될 수 있는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중문 :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동남아나 한국이나 중국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는 네덜란드나 영국이 동남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에 위안부라는 것이 이식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네덜란드가 위안부 문제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정진성 :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붙은 나머지 식민성이 사상되는 전철을 밟지 말고, 그 특수성을 인종주의에 부쳐 페미니즘이 같이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3부 - 판결과 과제

김윤옥 : 이제 판결과 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조시현 :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판결문을 판사가 더 보완해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윤정옥 : 네. 그들 스스로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4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윤옥 : 12월 12일 당일 판결에서 누락된 점이 있는지, 최종판결에 요구할 점이 있는지 언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옥 : 저는 국민기금을 받으면 왜 안되는지 꼭 밝혔으면 합니다. 서양사람들은 국민기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로비를 많이 해서 그들의 머리에 일본의 논리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시현 : 기소장에 국민기금은 법적 의무의 차원이 아님을 명확히 해놓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문제는 국제법상 특이합니다. 나찌에 의한 기금문제도 있고 해서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윤정옥 : 론다 카플론이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금 안에 사죄의 편지가 들어있지만 그것은 가짜거든요. 불쌍하니까 국민에게서 걷은 돈으로 보상하고 의료기금을 주고 개인적 자격으로 쓴 총리의 편지거든요. 이 셋은 세트로 죄를 인정 안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치르는 것이므로, 기금을 받으면 일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조시현 : 기소장에 식민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장완익 : 우리 기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검사 기소에는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현아 : 10개국이 참여했는데, 각 국의 차이점을 고려 안하고 보편성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윤정옥 : 아프리카계 미국사람을 포함해 우리가 일본에게 감금당했고, 위안부가 잡혀간 역사적 배경을 알기에는 너무 백지이므로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다 온 세상이 젠더문제만 보기 때문에...

양현아 : 그래서 각 국 간의 차이를 명시하고, 한국의 식민주의라든가 특정한 상황을 강조하다보면 한국의 지역주의로 편협하게 보일 우려가 있으니까, 역사적 치유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발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정옥 :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판결에 넣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성 : 언젠가 저하고 양미강 총무하고 같이 일본에 갔을 때, 1998년 12월 돌고돌이 공청회에 대해 논의할 때 식민성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반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식민성을 반영한 국제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공청회밖에 없다고 해놓고 정작 공청회에서는 빠져버렸습니다.

조시현 : 정대협이 주최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드러나는 게 정대협 자신의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필리핀을 통해 하다 보니 문제가 많고, 국제법은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가 법 제정을 하니 과거 문제를 반성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겠지요. 국제법에서 식민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 전쟁이 일어나면서 '식민지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양현아 : 법은 보수적인 것이지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금 식민지 잔재 청산 분야가 다시 연구되고 있습니다.

조시현 : 법이란 본래 떠돌다가 법에 반영되고 제정되는 것이지요.

김윤옥 : 앞으로의 과제, 최종 판결에서 원하는 것,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지역주의를 오해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문제에서 더 이야기하실 점이 있습니까?

조시현 : 기소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이고 전쟁범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유죄판결이 난 것은 반인도적 판결 부분만 났고, 전쟁범죄는 언급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는 북한에서는 한반도 관계를 무슨 관계로 볼 것이냐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교전이나, 강점이나가 문제인데 우리 의견을 그다지 수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점의 문제로 판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국은 각 국의 상황대로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옥 : 우먼스 코코스가 주체가 되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세계적 네트워크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과거 전쟁시대의 위안부와 지금 현재의 조직적인 성폭력 피해국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피해국의 조직들이 자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그 정부로 하여금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자. 또 피해국의 각 단체가 각각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자. 아시아의 모든 피해국이 모두 연대해서 힘을 합치자. 아시아 피해국이 연대해 일본에게 요구, 과거 피해자와 현재 피해자와 유대를 맺자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제는 일본이 더 이상 거부 못할 것이라는 거지요.

김윤옥 : 우먼스 코코스가 모여서 흠어지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어 코디네이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요?

양미강 : 아까 피해국과의 네트워크가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죠.

하종문 : 식민지 네트워크를 만들자.

양현아 : 아까부터 네트워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법정의 한계이면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 검사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이메일도 없고 정보교환도 안 되고, 우리만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도 인종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이 현재 국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몸들인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메일교환도 없이 그냥 왔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양미강 : 이메일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각 국 간의 비교연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23, 24일 IOC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2000년 법정에 함께 했던 후속모임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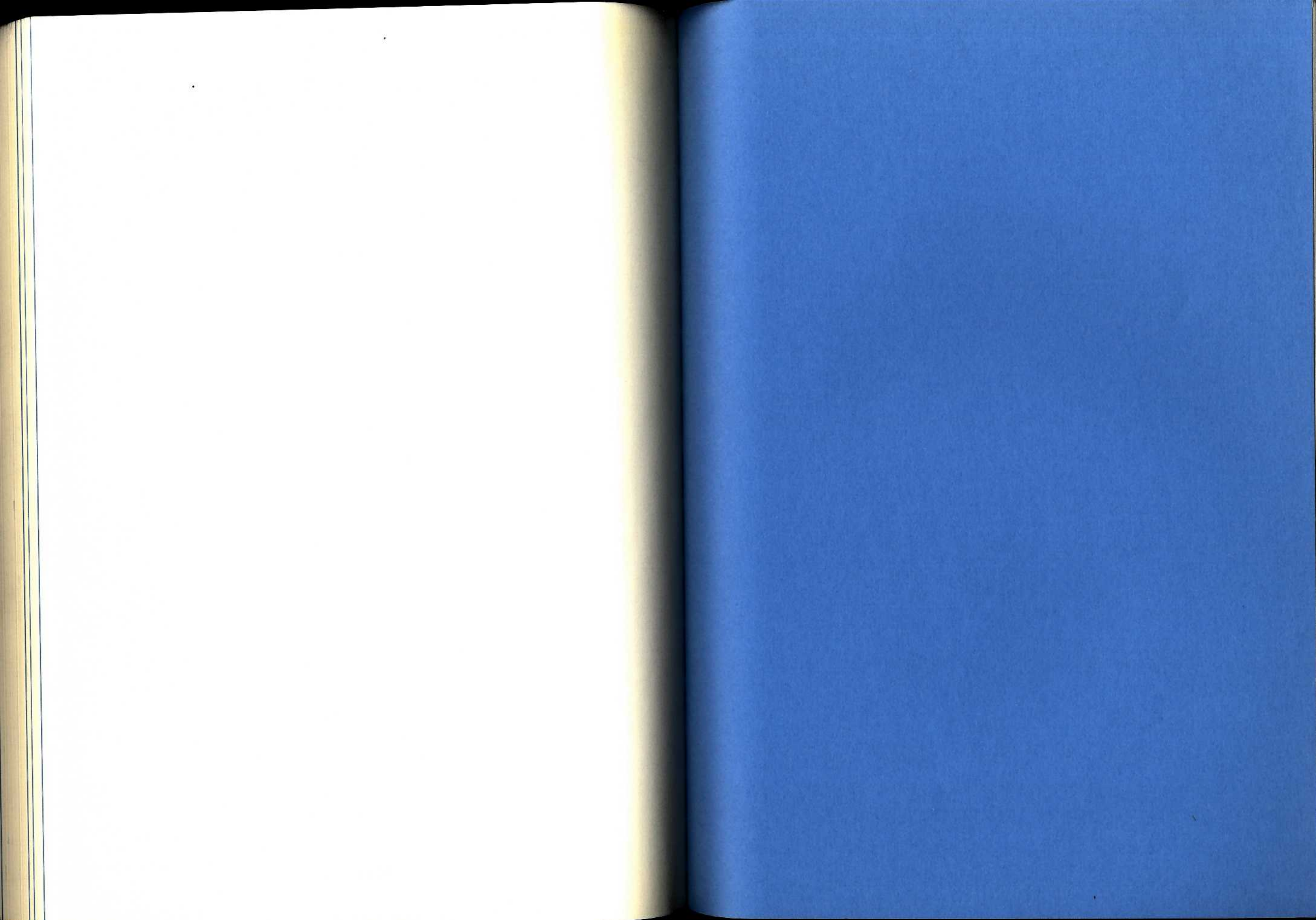
양현아 :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메일 교류도 안 된다면 각 국 간의 비교연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꾸 넓혀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옥 : 한국위원회가 이를 주관해 나간다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국제적인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제 국내적인 것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법률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 2월 21일 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윤정옥 :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대만과 다르고, 일본의 공창과 다른 이런 문제를 묻고 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말하는 인종주의 문제 등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재구성해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 목적이 이것만이 아니기에 열심히 10년 동안 일해왔

습니다. 지금까지 가부장제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뿐이었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론이 꿈 없이 또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부분적 변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꿈을 꿴습니다. 그의 상징적 변화로 몸짓으로 2000년 법정을 12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래서는 안된다. 세계 질서를 바꾸자, 법률을 바꾸자, 국제법까지도 바꾸자 하는 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김윤옥 : 북한과의 문제나 한국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간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V. 부 록

1. 2000년법정 연혁
2. 2000년법정 조직
3. 한국참가단 명단
4. 2000년법정을 위해 협조한 단체와 개인
5. 2000년법정 참관기
6. 언론보도자료

V. 부 록

1. 2000년법정 연혁

1998. 4. 9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일본의 마쓰이 야요리가 2000년법정을 개최할 것을 제안
1998. 4.15~17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법정을 개최하기로 공식적 결정
1998. 4. 25 정대협 실행위원회에서 2000년법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강정숙, 이미경, 양미강을 위원으로 선임함,
1998. 5. 20 준비위원회 1차 모임을 열고, 2000년법정의 성격과 향후 방향 등을 논의
1999. 2.18~19 서울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실행위원회를 창립하고 공동대표에 윤정옥(한국), 마쓰이 야요리(일본), 인다이 사호르(필리핀) 선출
1999. 6. 6~7 일본에서 열린 바우넷 재팬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윤정옥 공동대표의 기초발제, 2000년법정에 대한 의견교환(윤정옥, 지은희)
1998. 7.30~31 일본에서 열린 강제연행 세미나에 참석하고 일본단체들과 2000년법정의 진행과 형식에 관한 의견교환(정진성, 지은희)
1998. 11. 6 준비위원회 2차 모임을 열고 운동단체, 연구자, 법률가 등으로 한국위원회 구성할 것을 논의
1998. 11. 20 준비위원회 3차 모임을 열고 12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참석자와 한국위원회 발족식을 12월 7일 개최하기로 함.
1998. 11. 30 정대협 실행위원회는 2000년법정 한국위원회 조직을 위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기로 함.
1998. 12. 7 한국위원회 발족식을 거행하고 약 40여 명의 위원을 위촉
1999. 1. 16 한국위원회 2차 모임을 갖고 최초의 민간법정인 러셀법정에 대한 발제(조시현) 진행.
한국위원회 조직구성 - 위원장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부위원장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정진상 정대협 진상규명위원장, 법률위원회(위원장 김명기),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정숙), 홍보위원회(임시위원장 김윤옥), 기획재정(위원장 미정) 4개분야로 나뉘어 위원회 구성
1999. 2. 11 한국위원회 3차 모임을 갖고 2000년법정의 목적에 대한 발제(윤정옥)와 향후 진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논의
1999. 5. 15 한국위원회 4차 모임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강정

- 숙), 2000년법정의 구성(조시현), 2000년법정과 피해자증언(최일숙)에 대한 발제와 일본측에서 제안한 2000년법정의 규약을 검토
1999. 5. 29 한국위원회 5차 모임을 갖고 일왕 처벌의 근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결합시키는 방식, 피해자 중심의 Civil Actions 도입 등에 대해 논의. 2000년법정의 규약을 취지문 형태로 하며, 배심제도와 변호인제도는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
- 1999.6.4~6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초청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동시에 전략회의를 통해 2000년법정을 위해 국제 홍보의 필요성과 Moving Trial의 가능성 등을 논의(한국, 일본, 대만 등 참석)
1999. 6. 24 한국위원회 6차 모임을 갖고 2000년법정의 조직 확대개편안과 국제실행위원회 편으로 각국의 기소장을 출판하기로 제안
1999. 7. 3 한국위원회 임시회의 예비토론을 진행하여 한국의 2000년법정 자료집을 출판하기로 하고 조직의 강화를 위해 독일, 미국 등 해외조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 법정의 전반적인 구조 속에서 pre-tribunal 심포지엄을 기획하는 방안 연구
1999. 7. 2000년법정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남태평양과 사할린을 중심으로 해외조사 실시(윤정옥, 여순주)
1999. 9. 3 한국위원회 7차 모임을 갖고 10월 대만 실행위원회 참석자 선정과 법정 시나리오를 법률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함.
1999. 9. 27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0년법정 판·검사단에 제3세계 인사를 추천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박원순, 한승헌을 추천기로 하고, 2000년법정 자료집을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함.
- 1999.10.1~2 일본 동경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국제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0년법정의 규모와 내용, 조직, 현장과 재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토론했.
- 1999.12.1 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0년법정 현장검토, 예산안을 확정함
- 1999.11.10~12 미국 워싱턴에서 법률자문단 회의를 열고, 2000년법정의 성격에 대한 토론과 판검사단 후보 명단을 선정
1999. 12. 27 한국위원회 8차 모임을 갖고 한국 기소장 구성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 조시현 교수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 후 각 분야별로 자료를 보완하기로 함.
2000. 2. 23 4차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법정위원회를 한국위원회 내에 두기로 하고, 3월 상해국제실행위원회에서 국제홍보를 위한 국제미디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 2000.3.27 5차 운영위원회에서 상해 국제실행위원회에 제안할 안건을 확정하고 일본에서 보내온 현장초안은 박원순, 조시현에게 일임하여 검토하기

- 로 함.
- 2000.3.30-4.2 중국 상해에서 한국, 북한, 대만, 중국, 일본, 필리핀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국제실행위원회를 열고 2000년법정 기간 내 국제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제검사단회의를 통해 현장을 확정, 판검사단의 수락상황을 점검함.
- 2000.4.26-27 서울 이화여대에서 2000년법정 학생법정을 개최. 총 400여 명 참석
2000. 6. 8 한국위원회 9차 모임에서 그동안 진행된 각 위원회 사업보고를 듣고 기소를 위해 한국 측 검사단을 8명(김명기, 박원순, 조시현, 장완익, 김창록, 양현아, 하종문, 강정숙)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북측에게 남북공동검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함. 2000년법정 시 개·폐막식 및 특별프로그램을 7월 국제실행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고 오키나와 해외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2000. 6. 27 6차 운영위원회에서 오키나와 해외조사를 강정숙 선생이 진행하기로 하고, 2000년법정 논문집 출판사를 풀빛출판사로 선정. 2000년법정 후원 모금을 위해 미국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홍순관씨에게 일임하기로 함.
2000. 7. 18 7차 운영위원회에서 대외협력위원(위원장 신혜수, 위원 정숙자)을 보강하고 마닐라 국제실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재검토함.
- 2000.7.28~31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한국, 북한, 중국 등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국제실행위원회와 국제검사단회의를 개최하고, 각 국의 기소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증인과 판사단을 확정하는 동시에 각 국별로 국제홍보팀을 조직하기로 함. 남북한은 2000년법정 시 남북공동기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
2000. 8. 15 8·15를 기점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00년법정을 위한 국내캠페인 전개
2000. 9. 6 8차 운영위원회에서 남북공동기소장에 관한 워크샵을 준비하기로 하고, 대만실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개인의 책임부분은 유무죄로, 국가책임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함. 남북공동 기소를 위한 시나리오안을 만들기로 하고 북측에 보내어 조정하기로 함.
- 2000.9.14~18 대만 타이페이에서 한국, 북한, 일본, 동티모르 등 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국제실행위원회와 국제검사단회의를 개최함. 2000년법정의 최종일정을 확정하고, 하야시 히로후미 등 전문가증인교섭을 완료, 각 국별로 역할분담(접수, VIP접대, 무대감독, 미디어팀, 재정팀 등). 남북한 검사단은 공동회의를 열고 남북공동기소에 관련된 토론 진행
2000. 9 2000년법정 재정마련과 홍보를 위한 미국캠페인 전개(홍순관 콘서트)
2000. 9 2000년법정 홍보를 위한 독일 캠페인 전개(김윤옥)

- 2000. 10. 16 한국위원회 10차 모임에서 남북공동기소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법정 시나리오팀을 구성하기로 함. 2000년법정을 위해 각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함. 12월 10일에 열리는 국제공청회의 공동주최자로 정대협이 참여하는 것을 국제자문단에 공식질의서를 보내기로 함.
- 2000. 10. 25 2000년법정 재원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
- 2000.10.26~27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판사단을 열고 현장을 최종확정하고 기소의 대상을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 개개의 피고로 하기로 하고 2000년 12월에는 요약판결, 그리고 2001년 3월경에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함.
- 2000. 11. 16 정대협 10주년과 더불어 2000년 법정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움을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개최하고 정대협운동을 위해 애써온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
- 2000. 11. 17 2000년법정 홍보를 위한 가을음악회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
- 2000.11.17~21 일본 동경에서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참석한 가운데 6차 국제실행위원회를 개최함. 2000년법정의 세부일정을 논의하고 미디어팀을 일본의 다카하시, 한국의 신혜수를 코디네이터로 선정, 예산안을 40만불로 확정
- 2000. 11. 28 한국위원회 11차 회의를 정대협 실행위원회와 연합으로 개최하고 2000년법정의 세부일정 및 국내외 캠페인을 보고함. 남북공동기소는 사회를 박원순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하고 참고인으로 김군자, 김복동, 송신도 할머니로 정함.
- 2000. 11. 29 아시아 각 국에서 2000년법정 홍보를 위한 아시아연대시위 개최(7개국)
- 2000. 12. 4 2000년법정을 위해 각 국의 피해자와 관계자, 각 국 검사단, 국제검사단, 판사단 동경에 도착
- 2000. 12. 5 남북 공동기소를 위한 남북한 검사단, 피해자, 관계자와의 만남(반쵸교회)
- 2000. 12. 6 각 국의 법정 리허설(일본 동경 구단회관)
- 2000. 12. 7 개막식
- 2000. 12. 8 남북공동 기소, 중국 기소, 환영만찬
- 2000. 12. 9 대만 기소, 필리핀 기소, 말레이시아 기소, 비디오 페스티벌
- 2000. 12. 10 인도네시아 기소, 동티모르 기소, 네덜란드 기소, 아시아문화의 밤
- 2000. 12. 11 국제공청회, 피해자들간의 만남
- 2000. 12. 12 최종판결, 폐막식(일본 동경 청년회관)

- 2000. 12. 27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제3회 할머니 추모회 및 2000년 법정 보고집회 개최. 약 150여 명 참석
- 2001.2.22~23 서울에서 2000년법정 최종판결을 위한 7차 국제실행위원회를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최종판결은 국제전범재판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월 중 개최하기로 함.
- 2001. 5. 30 2000년법정 총서 시리즈 첫 권으로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출간
- 2001.9.22~23 미국 뉴욕에서 2000년법정 최종판결에 관한 공동대표단회의를 갖고, 최종판결을 12월 3일~4일 헤이그에서 개최하기로 확정
- 2001. 12. 2. 헤이그에서 공동기소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남북협의를 가짐.
- 2001. 12. 3 헤이그 루센트 극장에서 아시아 피해국 10개국의 기소
- 2001. 12. 4 300명이 모인 가운데 최종판결 (252페이지)
- 2001.12.5~6 '정의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 약 150명 참석
- 2001. 12. 26 최종판결 보고회와 2000년법정 총서출판기념회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총 4권 출판)

2. 2000년법정 조직

○ 정대협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예장여교역자회, 기장여신도회, KNCC여성위원회, 기장여교역자회,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 세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정신연구소,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ZONTA, 경남 정신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연대, 이화민주동우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정대협 실행위원 (2000년)

- 공동대표 :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 명예대표 : 이효재
- 국제협력위원회 : 신혜수
- 생존자복지위원회 : 김신실
- 진상규명위원회 : 정진성
- 교육위원회 : 김혜원
- 대외협력위원회 : 윤순녀
- 아시아연대위원회 : 정숙자
- 홍보출판위원회 : 신영숙
- 재정위원회 : 유춘자
- 서기 : 한국염
- 부서기 : 정태효
- 회계 : 최만자
- 총무 : 양미강

○ 한국위원회

- 위원장 : 윤정옥
- 부위원장 : 김윤옥, 정진성
- 법률위원회 : 김명기(위원장), 조시현(간사), 김창록, 지정일, 홍성필, 이장희, 이상면, 정인섭, 최봉태, 조용환, 박원순, 최영도, 안상운, 정진성, 박찬운, 박현석, 배금자, 장완익(이상 위원)
- 진상규명위원회 : 강정숙(위원장), 양현아, 여순주(공동증언팀장), 최일숙, 정재정, 강창일, 신영숙, 김민철, 심영희, 김은실, 이미경, 안상님, 하종문, 이철원, 윤정옥, 김현미, 선우성, 이수현(이상 위원)

- 기획홍보위원회 : 지은희(위원장), 최만자, 이문숙, 김신실, 윤순녀, 한국염, 신영숙, 정태효(이하 위원)
- 대외협력위원회 : 신혜수(위원장), 정숙자(위원)
- 재정위원회 : 김혜원(위원장), 유춘자, 김혜엽, 윤명선, 김신실 (이하 위원)
- 검사단 위원회 : 김명기, 박원순, 조시현, 장완익, 김창록, 하종문, 양현아, 강정숙

○ 2000년법정 사무국

<한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양미강

간사: 고미령, 진현정, 정은정

지원: 이정이, 고동실

<일본: 바우넷 재팬>

<필리핀: 어센트>

3. 한국참가단 명단

강금실 강여규 강영애 강인성 강일출 강정숙 강제숙 강혜숙 강혜진 강희영 고미령
 고미정 공춘옥 곽동협 권영숙 권영아 권태원 권희순 김경신 김남연 김남중 김대실
 김미정 김민정 김민철 김복선 김분선 김분이 김상희 김선국 김선미 김수정 김수진
 김숙진 김영주 김윤옥 김은식 김은실 김은례 김은형 김정현 김주혜 김진향 김창록
 김태식 김현숙 김현옥 김현옥 김현정 김혜원 김화선 김황옥 노순자 대은정 류지연
 문필기 박경향 박남정 박상희 박성희 박세영 박수경 박수원 박민희 박연정 박영숙
 박옥련 박원순 박정규 박진영 박현수 박현숙 박현철 박혜경 배명순 배숙희 변정원
 부가청 서승덕 성명옥 송경숙 송지은 신영숙 신현순 신혜수 심달연 심영희 심정란
 안민형 안법순 안영희 안해룡 양미강 양영희 양은하 양점순 양지혜 양현아 여순주
 연경자 오수연 오순애 유성찬 유춘자 유해정 윤경찬 윤명숙 윤순녀 윤순만 정연옥
 윤정옥 이거임 이령경 이미경 이병희 이선화 이선화 이성순 이소영 이소지 이순영
 이승훈 이양근 이연지 이용녀 이용수 이용주 이우경 이은혜 이정민 이정이 이정용
 이정희 이정화 이종원 이종호 이지예 이진영 이창숙 이철원 이현숙 이현호 이희숙
 임영신 임현숙 임현주 장미라 장옥주 장완익 장태한 장효정 정서운 전성현 정문채
 정미화 정숙자 정신채 정연순 정연옥 정연진 정윤숙 정은숙 정은정 정은정 정진성
 정태효 정현경 제갈점선 조미옥 조상록 조선희 조순애 조시현 조여권 조유아 조정훈
 조지희 주애란 주현숙 지은희 진현정 진화선 차진이 차혜영 최갑순 최기자 최미화
 최봉태 최상희 최성옥 최은진 하종문 한국염 한국행 한도순 한명숙 한예린 한원상
 한정로 한지연 현경애 배영철 홍순관 홍영훈 홍옥주 황금주 황미영 황은영 황현경
 (210명)

※ 외국인 참가자

Ermina Freytag, Maren Trosken, Martin Vickery, Ruth Sarah Ralston, Yonekur
 Mayumi, Barry Fisher, Grace Eunhyung Lee, Won Row Steave (8명)

총 218명

※ 할머니 참가자

강일출, 김복선, 김분선, 김분이, 김상희, 김은례, 김화선, 문필기, 박옥련, 신현순,
 심달연, 안법순, 양점순, 윤순만, 이용녀, 이용수, 정서운, 최화선, 최갑순, 한도순,
 황금주

4. 2000년법정을 위해 협조한 단체와 개인

○ 후원

한국마사회, 한국여성기금, 여성부,

○ 개인후원

강금실 강기원 강상우 강일출 고미령 고성희 고소향 구재화 김경실 김경훈 김대술
 김미정 김백신 김병국 김복선 김분이 김상희 김선실 김성만 김성희 김세영 김승국
 김신실 김우혜 김원석 김원웅 김윤옥 김은례 김진홍 김창록 김태자 김태호 김한덕
 김현미 김현희 김혜엽 김혜원 김화선 김희도 나각순 문정주 문필기 문한터 박경하
 박기남 박옥련 변창배 서 숙 손영주 송순정 신경숙 신영숙 신혜수 심달연 심미경
 심영희 안법순 안애숙 안정원 안준식 안태사 양정순 연성희 오세근 오인문 오정화
 유미화 유춘자 유호정 윤명선 윤미향 윤순녀 윤순만 윤영애 윤정옥 이남섭 이덕실
 이동원 이미경 이부영 이순희 이승훈 이양근 이연순 이영구 이용녀 이용수 이윤희
 이장희 이정미 이정희 이지예 이태진 이호중 이효재 임용한 임혜선 장미라 장성하
 장소영 장완익 장현주 정기숙 정도진 정서운 정숙자 정승은 정은미 정은영 정은정
 정진성 조시현 조전호 주창권 지은희 진 영 진현정 진화순 최갑순 최기영 최만자
 최만자 최 영 최영희 최일숙 최형묵 한국염 한도순 한명숙 한민정 홍옥주 황금주
 황덕현 황수용 무명

○ 단체후원

경기대 총여학생회, 경실련, 경남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경희대 국문학
 과, 경희대 국문학과여학생회, 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민회, 기독교여성연대특별기도
 회, 기장서울노회, 기장여교역자회, 기장여신도회, 긴급학회, 나눔의 집, 대구 정신
 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동북여성민우회, 마일드항공사,
 부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새홍성교회, 성프란치스코 수녀회, 성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원YMCA,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알트루사, 여성교회, 여성단체연
 합,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연합, 여성특별위원회, 여신학자협의회, 예장여교역자
 회, 예장총회 사회부, 이화민주동우회, 이화여대 영문학과동창회, 이화여대총동창회,
 인천전국연합, 인천지역카톨릭노인연합교실, 장상연합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제일
 대한기독교오사카교회여성회, 전교조, 전기공사공제조합, (주)썬커즈, 제주여민회,
 지구촌여행사,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질경이한복, 통일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
 살림, 한국노총 여성국, KSCF

○ 해외후원

Ptesbyterian, Yale 교회, , 미국 나성동부 영락교회, 미국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여

선교회연합회, 뉴욕 Bong J. Sheen, 뉴욕 한국인교회, 신옥남목사·북가주한인여성교회연합회, 재독한국여성모임, 독일 Gisela Lcoluelg, 독일 Stiftung Umverteilen Ryoko Nigayi, 독일 최용숙, , 일본 「처부수자-국민기금」·허락하는가 국민기금, 일본인방문자, 일본히메지교회, 일현고등학교원, 타다사야코, 고토이찌로, 官平とみ, 미끼하라찌카코, 미모리하사코, 시바타 타시아키,

○ 거리모금

명동캠페인 모금, 서울문화제 모금함, 진주캠페인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

○ 지역캠페인에 함께 한 단체들

전주기독살림여성회,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가톨릭인천교구노인교실연합회,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제주조직위원회(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제주대 사회과학학생회, 제주여민회, 제주범도민회), 수원 YWCA, 광주 여성회

○ 문화활동을 도운 분들

김숙진, 김선국, 홍영훈, 정갑수, 이해경, 이해란, 우진영, 예병남, 임영신, 박정이, 김태식, 박보밴드, 이정미, 홍순관, 강혜숙과 춤패, 아트 카오스, 방은진

○ 학생법정에 참여한 학교들

서울학생준비위원회, 조선대, 부산대, 창원대, 동아대, 건국대, 전북대, 한림대, 경남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경희대, 경기대, 감신대, 서원대, 원광대, 한신대, 서울대, 해양대, 제주대, 부경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영남대, 충북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남대

○ 일본현지에서 도운 단체와 개인

신현석, 재일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교회들, 도미사카 크리스찬 센터, 스캇 하우스, 동경중앙교회, 재일청년한국연합회

○ 진행 지원

동시통역: 차진이, 이진영, 이소영, 김현숙(영어), 송지은, 안영희(일어)
통역과 번역: 그레이스, 사라, 박연정, 강희영, 김준하 외 수많은 분들
진행: 이지예, 장미라, 김미정, 고미정, 양영희, 김주혜 외 수많은 분들
사진: 박영숙
촬영: 아시아 프레스(안해룡), 한원상

○ 진상규명활동을 위해 도운 단체와 개인

- 할머니 촬영: 인천사랑병원, 광병원, 서울중앙병원,
- 증언수집과 분석: 서울증언팀, 정신대연구소, 지역증언팀(전주기독살림여성회, 대구시민모임, 경남정대연)
- 증거자료: 이수현, 이철원, 심영희
- 해외답사: 일본 오키나와, 사할린의 해외교포

그 외 일일이 거론할 수 없었지만 각 영역에서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5. 2000년법정 참관기

2000년법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심영희¹¹⁵⁾

12월 초는 학기말일 뿐 아니라 학교에 보직을 맡고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정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가서 할 생각으로 일을 싸들고 도쿄로 갔다. 여성들의 손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 의의가 있는 이 법정을 살살이 기록하리라 생각하고 사진기에다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까지 챙겼다.

왜 이렇게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위안부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2년 국제사면위원회와 컬럼비아대 법대가 공동주최하여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세미나에 참여하여 한국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8년 12월 2000년 법정을 위한 한국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로소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1999년 3월부터 8월에 걸쳐 위안부 할머니들을 면접하면서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고 나눔의 집에도 가고 하였다. 면접하면서 울기도 많이 하면서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9월 스페인에서 ‘집합기억과 법적 제도’라는 워크숍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00년 법정의 의미와 성격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런 맥락에서 개막식을 소개한다.¹¹⁶⁾ 다음으로 법정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체기소, 남북한 공동기소, 다른 나라의 기소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기소 내용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겠다. 이어서 국제공청회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2000년 법정기소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짚어보고 이번 법정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다.

1. 2000년법정의 의미와 개막식

115)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가 「여성과 사회」 12호(2001년 상반기)에 실었던 글임을 밝힌다.

116) 2000년 법정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12월 7일(목) 개막식, 12월 8일(금) 오전 국제검사단 기소, 오후 남북한 공동기소·일본기소, 12월 9일(토) 오전 일본기소(계속)·중국기소, 오후 필리핀 기소·타이완 기소, 12월 10일(일) 오전 말레이시아 기소·네덜란드 기소·인도네시아 기소, 오후 동티모르 기소·전문가 증언·일본검사 기소·국제검사단 기소, 12월 11일(월) 국제공청회, 12월 12일(화) 판사단 판결로 되어 있다.

2000년법정의 의미와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로서 21세기가 되기 전에 과거청산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20세기의 묵은 때를 가지고 21세기를 맞을 수는 없으니 20세기의 죄악과 범죄는 20세기에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새 천년을 전쟁과 폭력이 없는 시대,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 시대로 만들자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여성들이 앞장서자는 뜻이다.

둘째,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이라는 한국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2000년법정은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시민법정이자 상징적 법정으로 의도되었다. 명예는 담론과 여론을 통해, 정의는 법적 처벌과 배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보아 정의도 여론의 정의, 담론의 정의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법정은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시민법정이자 상징적 법정으로써 이 법정이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법보다 더 큰 담론권력에 호소하자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민운동들보다 여성운동이 담론권력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이어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2000년법정을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아시아 여성들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자는 뜻이 있다. 위안부문제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 아시아 여성들이 만나게 되었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아시아 여성들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법정에서는 부대행사로 문화의 밤이 있었는데,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여 전통음악·춤 등의 연희와 함께 독특하고 익살스러운 무대를 꾸며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2000년법정의 이러한 성격과 의미는 개막식 행사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다. 먼저 국제조직위원회 대표인 윤정옥, 마쯔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의 인사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있었다. 이들은 왜 이 법정을 여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21세기를 앞둔 현재에서의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2000년법정의 의의에 대해 말하였다. 그중 “이 법정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고, 황궁이 바라보이는 구단회관에서 2000년법정을 연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다.

다음으로 2000년법정 로고가 입장했다. 로고는 왼쪽 위에 태양, 오른쪽 위에 꽃, 왼쪽아래에 촛불, 오른쪽 아래에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 네 가지 문양을 사람들이 하나씩 따로따로 들고 입장하였다. 그러나, 이 로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팜플렛이나 관련책자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고 아쉬웠다. 나중에 정대협에 물어보니 태양은 희망, 꽃은 여성, 촛불은 피해자, 눈은 정의를 밝히는 눈이라고 했다.

로고가 퇴장하자 갑자기 무대조명이 어두워지고, 푸르고 교묘한 빛이 흐르면서 김

학순, 강덕경 할머니 등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이 모셔지고 강혜숙 교수의 살풀이춤이 시작되었다. 할머니들의 영정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그들의 한을 풀고 넋을 위로하려는 춤이었다. 하얀 한복을 입은 강교수의 춤은 푸르른 조명 아래 소름끼치도록 처절한 흐느낌 그 자체였다. 후에 한 참석자는 돌아가신 그 할머니들이 이 법정에 다들 오셨을 거라고 말했다.

살풀이춤이 끝난 다음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법정에 참여한 각 국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줄을 이어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개막식은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꽃 한송이씩을 영정 앞에 놓고 추도의 묵념을 하고 내려왔다. 할머니들의 줄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가 이렇게도 많단 말인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계실 것이고, 이 법정에 참여하지 못한 할머니들도 계실텐데... '일본군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위안부를 끌고 갔기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라는 노래의 합창이 있었다.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흑인여성이 나와서 먼저 부르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불렀다. 몇 번을 불러도 끝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가사를 바꾸어 "우리는 오늘 면책(불처벌)을 끝내리라"(We shall stop impunity today)라고 외쳤다. 모두들 환호했다. 지금까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없었다는 데 대해 참석자 모두는 분노하며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이 법정을 통해 면책(불처벌, impunity)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가해자들의 처벌을 염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전체기소 및 남북한 공동기소

2000년법정이라고 해도 진짜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고 시민법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법정 같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법정이 열리자 모든 것이 법정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왼쪽이 각 국 검사단석, 가운데가 수석검사 및 서기석, 오른쪽이 판사단석이었다. 판사단 뒤쪽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세 대표가 자리잡았다.

법정의 서기가 개정을 선언하였고, 이어서 "모두 일어서십시오"라는 서기의 목소리와 함께 가브리엘 맥도널드 등 4명의 판사가 입장하여 자리를 잡았다. 다음으로 검사단 소개가 있었다. 공동 수석검사인 패트리샤 셸러즈와 유스티나 돌고폴을 시작으로 각 국 검사단이 소개되었다. 뒤이어 국제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마쯔이 야요리, 윤정옥, 인다이 사호르의 인사말이 있었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판사는 이 법정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일본정부에 이 법정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하며 말문을 열었다. 12월 12일 판사단에 의한 판결이 내려지고 최종판결은 2001년 3월 8일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수석검사인 패트리샤 셸러즈의 개정논고가 있었다. 그녀는 유고 전범

재판에서 법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그녀의 모습과 말은 위안부 할머니들뿐 아니라 피해국에서 온 사람들,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시원하게 큰 키에 법복이 잘 어울리는 그녀는 말소리 또한 우렁차서 알아듣기 좋았고, 표정과 매너 역시 호감을 주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석검사인 유스티나 돌고폴보다 뒤늦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피해국 여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수월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인도(人道)에 반한 죄와 강간죄에 기반하여 기소한다고 논고를 풀어나갔다. 인도에 반한 죄를 노예제로 설명하면서, 노예제를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운송하거나 성적·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1945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노예제는 여전히 범죄로 성립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1861년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전쟁이 있었고, 1926년에 노예제폐지협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상식과 법적 지식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그녀는 다양한 증거를 볼 때 아시아지역의 위안소는 치약처럼 일상화되어 있었고 장군들의 역할 중 하나는 점령지역인 한국·타이완 등지로부터 여성을 모아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이들 여성들을 정신적 죽음으로 몰고 갔고 결국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문의 체계, 이러한 조직의 체계에 입각하여 인도에 반한 죄, 성노예제를 시행한데 대해 천황 히로히토를 피고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판사들에게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를 적용하여 부정의한 것을 풀고 옳은 것을 구성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인도에 반한 죄가 당시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인지 물었고, 천황 히로히토를 기소한 데 대해 도쿄 재판에서는 히로히토를 거명하지 않았는데, 다른 증거가 있는지 물었으며, 생증인을 세우는지 물었다. 패트리샤는 이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남북한 공동기소가 있었다. 남측 검사단은 박원순(대표), 조시현 등 모두 8인, 북측 검사단은 홍선옥(대표), 정남영, 황호남 등이었다. 먼저 박원순 대표검사가 나와서 남북한 공동기소의 전체 틀을 설명하였다. 박원순 대표검사는 피고인들을 적시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밝힌 뒤 ①사회역사적 배경, ②강제연행 과정, ③위안소 내 범행, ④종전 후 범죄, 예컨대 유기, 살해, 육체적·정신적 고통, ⑤법적용의 차례로 기소를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가 피고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이것이 정말 법정이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철학자 산타야나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남북한 공동기소는 양쪽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협의해서 분업을 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청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간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즉 남한측 검사단들은 자료발굴 및 연구를 통해 피고인들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한 듯이 보인 반면, 북한측 검사단들은 전반적인 역사적 략락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부각하는데 주력한 듯이 보였다. 물론 증언과 관련해서는 남북 모두 위안부정책의 체계성과 위안소의 잔학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남북한 공동기소는 사회역사적 배경, 강제연행 과정, 위안소 내 범행, 종전 후 범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법률 적용에 대한 논고가 있었다. 개인적 책임은 남측 조시현 검사가, 국가책임은 북측 정남영 검사가 맡았다. 조시현 검사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인책임을 물어 피고인 8명을 기소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마쯔야마 유조, 미나미 지로, 이따까키 세이지로, 도오조오 히데끼, 그리고 천황 히로히토였다. 그는 책임의 근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시해나갔다. 그리고 젠더 정의, 피해자의 정의, 복수가 아닌 평화·재활·화해에 기반한 정의를 요청하였다. 북측의 정남영 검사는 피해자 증언과 각종 협약에 입각하여 국가책임을 논고하였다.

3. 다른 나라의 기소

남북한 공동기소가 끝난 후에 다른 나라들의 기소가 일본, 중국,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등의 순으로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있었다.

일본의 카쓰코 가와구찌 검사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1937년~1947년 중일전쟁 및 아태전쟁 시기의 일본정부와 군조직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어전회의를 통한 천황의 역할과 그가 이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도표로 정리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천황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그가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가와구찌 검사는 2000년법정에서의 활약으로 일본 우익들의 테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기소는 주로 피해자 증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하고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재확인시켜 주었다. 두 번째로 증언한 량리화 할머니는 일본군이 한겨울에 발가벗겨 나무에 묶어놓고 강간했고, 세 번이나 끌려가서 동굴 속에서 지냈다고 했다. 그녀는 증언 후 벌떡 일어서서 스웨터를 벗다가 쓰러졌는데 아마도 증언을 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때의 고통이 상기되었기 때문인 듯 싶었다.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119같은 데서 출동하여 들것에 누워 실려 나가는 할머니의 눈가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그 외에 1937년 12월의 난징학살과 강간 피해자도 증언을 하였다.

필리핀 기소에서는 참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전원이 흰옷을 입고 증언석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증언을 한 할머니는 몇 분 안되더라도 참가한 피해자가 모두 증언석에 나와 앉아 있으니 증언하는 할머니에게도 든든한 지원이 되고 방청객의 입장

에서 볼 때에도 커다란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 할머니들도 부러워하는 듯했다.

네덜란드의 기소에서는 도쿄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바 있는 안압바현이 나왔다. 그녀는 유복한 집 딸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가 일본군의 인도네시아 점령 때 끌려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다. 그녀는 차분한 말투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해 다른 증인들과는 달라 보였으며 매우 호소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50년의 침묵』이라는 책으로 써낸 바 있고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러 가지 증언 중에 눈길을 끈 것은 위안소를 이용했던 전 일본군 가해자 두 명의 증언이었다. 가네코에 쇼지와 요시오 스즈키 두 사람은 자신들도 강간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고, 전쟁에서 강간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적성지구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으며, 여자만 보면 강간했다고 했다. “왜 증언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증언하지 않으면 전쟁실태를 알 수 없다. 전쟁의 실태는 이렇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남기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왜 증언하러 나왔을까 의문이 들었으나 어쨌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남북한 공동기소와 다른 나라의 기소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피해내용의 차이이고, 둘째는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차이이다. 피해내용의 차이와 관련해서 남북한 공동기소에서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체계적 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인 데 비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성노예제의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난징학살·강간 등 전쟁시 성폭력의 피해자들도 있었다. 이 둘은 매우 다른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 법정에서는 한꺼번에 다루어져 많은 참여자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둘째,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차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남북한 공동기소는 다른 나라의 검사단과는 달리 증인 중심이 아니라 이슈별로 체계적 구성을 시도하였고, 자료발굴 및 연구를 통해 가해가 국가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자 증언을 위한 시간 배정이 적었고, 비중도 줄었다. 법정이 한편론 드라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증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의 기소는 주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양식을 취해 체계적 프리젠테이션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증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한 피해자 할머니는 증언 도중 쓰러져 실려나감으로써 그 피해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였다. 또 필리핀의 경우 증언한 할머니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참가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단상에 올라가 앉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극적 효과가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들 자신에게도 뭔가 해냈다는 보람을 안겨주었을 것 같았다. 우리 할머니들은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매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

4. 국제공청회

12월 11일에는 국제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는 사실상 2000년법정과는 별도의 것으로서 기획과정에서 아마도 거의 마지막판에 추가가 된 것 같았다. 공청회 주최측은 2000년법정이 열리는 내내 따로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청회는 '정의를 위한 여성 코커스'(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주최로 열렸고,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 등 각 대륙의 15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동티모르·오키나와·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이 발표를 하였고, 아프리카에서는 부르군디·소말리아·알제리아·코소보·시에라리온·팔레스타인 등이,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과테말라·콜롬비아·멕시코의 치아파스 등이 발표를 하였다.

발표는 대부분이 피해자의 생증언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부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서 무대 위 검은 커튼이 쳐진 공간 속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비디오 증언도 일부 있었다. 증언내용은 대부분 여성에 대한 끔찍하고 잔혹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국가간의 전쟁 중에, 또는 한 국가 내에서 반군과 정규군의 갈등이 있을 때, 점령군이나 주둔군에 의한 성폭력들이었다. 그 중 특이했던 사례는 13세 된 소년에 대한 강간이었다. 돈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해놓고 한참 후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소년이 거부하자 목을 졸라 소년이 죽은 듯 늘어지자 강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년은 강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증언자들 대부분은 성폭력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인터뷰를 하다가도 막상 성폭력 부분에 들어가면 '당했다'는 말밖에 다른 묘사를 하지 않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앞으로의 증언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리라고 본다.

증언이 끝나고 나서 오전 오후 세션별로 분석과 논평이 있었는데, 오전에는 '전쟁폭력 반대 오키나와 여성행동'의 수주요 다카자토가, 오후에는 인도에서 온 하메다 호사인이 논평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 특별보고관이었던 쿠마라스와미(R. Coomaraswamy)가 폐막연설을 하였다. 이 논평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대부분 전쟁, 강대국과의 관계, 한 사회 내의 정치변동이나 국제관계 및 체제변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국제공청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세계 각 국의 성폭력 사례를 들으면서 남자들이란 다 그런가 하는 생각에 잠기다가도, 왜 위안부문제에 최근의 전쟁과 성폭력 문제를 끌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위안부문제가 일본군의 특수한 문제라는 것을 회색화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나만의 기우일까?

5.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러면 2000년법정은 과연 소기의 목적,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목적을 달성했는가? 먼저, 21세기를 앞두고 과연 어두운 과거를 청산했다고 볼 수 있을까? 12월 12일 판결에서 판사단은 피고인 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비록 이 법정이 법적 효력은 없을지언정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부분적으로는 20세기의 전쟁범죄와 성노예제에 대해 뭔가 매듭을 짓기는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슴 어디에선가 부족하고 미진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결국 이 법정이 시민법정·상징적 법정에 그치고 말았고, 주최측과 피해자, 피해자를 대변하는 운동권 등 일부의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 때문이 아닌가 싶다.

둘째, 2000년 법정은 시민법정·상징적 법정으로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징적 법정으로써의 목적은 담론권력의 효과, 즉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세계여론에 널리 알리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는 젓혀두고, 일본 내에서조차도 언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신문이 법정을 가시화하지 않았고 가시화한 한두 군데 신문도 매우 짧은 단신으로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이 열리면서 일본 우익들이 구단회관과 구단호텔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테러위협을 가하는 일까지 생겼다. 또 플래카드를 건 대형버스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차량시위를 벌였는데, 우습게도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 특히 12월 8일 남북한 공동기소가 있는 다음날인 12월 9일은, 우익들의 데모로 위험하다고 하여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지하 연결통로로 다니고 한번도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다. 완전히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시 나가긴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어 자유롭게 또는 멀리 돌아다닐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과거에 우리의 할머니들이 당했던 차별과 폭력을 오늘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또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판결이 있던 날도 법정 밖에 우익단체들이 와서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상징적 법정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에 비해 한국 언론은 매우 열성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었다. 귀국 후 신문을 보니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반쪽보도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관심이나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기획기사 등은 별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셋째, 2000년 법정을 통해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 여성들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위안부문제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로 아시아 여성들이 만나게 되었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아시아 여성들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기화로 삼자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실제로 이번 법정에서는 부대행사로 문화의 밤이 있었는데,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여 전통음악·춤 등 고유문화와 함께 독특하고 익살스러운 무대를 꾸며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대표단이 아닌 참석자로서 아시아 연대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많은 이들이 참가하기는 하였지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었다. 더욱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은 거의 없었다. 일본의 와다 하루키, 우에노 치즈코, 서승 교수 등이 왔다 갔다고 하고, 노마 필드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미국 교수들도 왔다고 하지만, 왔다는 말만 듣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심지어 한국 참가자들끼리도 만나기가 어려웠다. 검사단과 정대협 실행위원들은 법정 준비부족으로 늘상 일하거나 회의 중이었고, 기소 후에도 기소장 수정으로 정신이 없는 듯이 보였다. 지원팀은 각종 지원업무와 보조업무로 정신이 없는 듯했고, 참가한 학생들도 지원업무에 동원되어서 앉아서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프랑스·독일 등 외국에서 온 한국인들과 학자, 학생 등 몇 안되었다. 다만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오랜 시간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6. 맺음말

일본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위안부 또는 전쟁과 성폭력 문제에 관한 단행본 연구서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2000년법정과 국제공청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열심히 들으며, 연구자로서 나에게 떠오른 과제는 앞으로 위안부문제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며, 어떻게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이론을 만들어낼 것인가였다.

우선, 성폭력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고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주로 의식과 문화의 문제, 즉 가부장적 문화, 이중적 성윤리, 순결이데올로기 등을 지적해왔는데, 국내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면을 볼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전쟁, 강대국과의 관계, 한 사회 내의 정치변동 등 국제관계 및 체제변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의 발생원인 연구에 있어서 시야를 좀더 넓혀 글로벌하게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2000년법정을 통해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국제공청회를 통해서도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이른바 '전쟁과 성폭력'이라는 테마로는 포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한국인 위안부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명틀을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쟁과 성폭력이라는 테마로는 다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보다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라는 더 깊은 정서가 저 밑바닥 깊숙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 패트리샤 셸러즈 수석검사가 마지막 논고에서 이런 점들을 살짝 비치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중심적인 것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식민지로 강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것이 전쟁시 성폭력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체계적인 동원과 성폭력, 성노예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2000년법정과 국제공청회는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한국의 위안부문제라는 특수성에 기반하여 우리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발전시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2000년법정은 위안부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연된 정의를 구하여¹¹⁷⁾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0년 12월 8일, 동경 구단시타

존경하는 판사단, 국제검사단 여러분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고귀한 영혼을 지켜오신 각 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 남북의 공동 검사단 일동이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00년 동경여성법정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북남 양측이 함께 만나 공동의 기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양측의 검사들이 공동으로 기소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남북공동검사단의 수석검사로서 나는 이렇게 기소를 시작했다. 2000년 12월 8일의 일이었다. 2000년 동경여성법정이 열린 것이다. 이곳은 구단시타의 구단회관, 일본천황이 거주하는 황거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그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커튼을 열고 보니 황거의 안쪽에 해자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깊이 파놓은 해자의 연못에 평화로이 노니는 물오리떼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듯 보였다. 더구나 일본의 전쟁 영웅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전쟁 지도자들의 신위를 모셔놓은

117)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변호사가 「역사비평」 2001년 봄호(54호)에 실었던 글임을 밝힌다.

신사 역시 수백 미터의 반경 안에 있었다. 구단 회관 역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유족회가 소유하고 있는 숙박. 회의 시설이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지연된 정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재판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첫째, 지연된 정의의 회복!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처벌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전쟁 후 동경전범 재판을 포함하여 재판이 열렸지만 연합국의 주도와 그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었을 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피해와 입장과 이익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1951년 이후 한 건의 재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 재판이 연기된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민중에 의한 재판! 그렇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바로 오늘 제기하고 있는 이 피고인들에 대해 1994년 동경지방 검찰청에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라, 그리고 국제기구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 스스로 법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피플스 트리뷰널, 민중의 재판입니다.

셋째, 여성을 위한 법정! 그것입니다. 군위안부 이슈는 지난 50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침묵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전후처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성문제으로써 군위안부 문제가 이토록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젠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은 위민즈 트리뷰널, 여성법정입니다.

넷째, 오늘의 이 법정은 바로 식민지 민중이 제기하는 재판입니다. 당시 남북 전 조선반도에서 10만을 넘는 어린 여성들이 강제 연행되어 군위안부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당시의 조선반도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었는가, 그것은 식민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2000년 동경여성법정에서 기소를 시작하면서 이 재판의 성격을 이렇게 요약했다. 사실 이미 반 세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재판이었다. 만약 아시아 지역에 정의의 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회대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이미 50년 전에 존재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나는 이 법정에서 서서 마치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피해 아시아 국가들과 그 민중과 정신대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히로히토 - 사자에 대한 기소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카무라 야스지, 미나미 지로, 이타가키 세이시로,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키치, 마츠야마 유조. 이 여섯 사람은 군위안부를 강제로 끌어가거나 군위안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였던 조선총독이거나 조선군사령관 또는 사령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외에도 특별한 피고인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도조 히데키, 그는 육군대신 그리고 수상으로써 이 군위안부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 군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특별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히로히토, 일본군부의 최고통수권자 그 사람입니다.

위의 대목은 이 재판, 이 기소의 결론이자 핵심부분이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발표할 때는 한 줄 한 줄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피고인 명단에 들어가는지 방청객은 알 수 없다. 발표의 새로운 기술이었다. 도조 히데키, 특히 히로히토가 나타날 때 잠시 뜬을 들이고 호흡을 가다듬어 '특별한 피고인' 또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곳에 힘주어 말했다. 화면에는 아직 이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숨죽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에 그 이름이 나타났다.

히로히토,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사자에 대한 재판이란 실정법상의 재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법정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죽어도 결코 면할 수 없는 정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웠다.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관동군사령관, 지나파견군 등 한때 조선반도와 중국의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었던 그 권력과 군대, 전쟁의 화신이었던 자들이 우리의 준엄한 기소와 논고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박영심 할머니의 드라마

이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입증에 들어갔다. 비디오 촬영된 증언, 법정에서의 직접 증언, 슬라이드가 제출되었다. 문서증거는 이미 재판부에 한 보따리 제출된 바 있었다. 전체 또는 일부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재판부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북한에서 촬영해온 슬라이드에는 군위안소 생활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당한 온갖 폭력의 흔적의 상처들이 담겨 있었다. 끔찍했다. 칼로 베이고 불로 지져진 흔적이었다. 재판부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이 날 현출된 증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박영심 할머니였다. 북한에서 온 이 할머니는 연합국이 찍은 사진 가운데 있었던 배가 불룩하게 임신한 가련한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고향에서부터 남경, 싱가포르, 버마로 끌려갔던 과정과 그 당시의 생활에 관한 증언이 이어졌다.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온갖 풍상을 겪었던 날들의 모든 기억이 그 희미한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

화 <뮤직박스>에서 마치 나치장교 출신의 아버지를 확인해 준 뮤직박스처럼 사진 속의 박영심은 가해자 일본군의 그 모든 학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 여성법정을 향한 진군

2000년 여성법정은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성단체모임에서 일본의 여성운동가 마츠이 야요리 씨가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해 4월 말에 열렸던 제 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법정의 한국위원회도 그 해 5월에 발족되어 준비에 들어갔다.

이 법정에는 우선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각 국의 대표단이 분담해야 할 몫이었다. 한국측에서도 10만 불(1억 2,000만 원 가량)을 마련해야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이끌어가던 여성지도자들은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싸안아야 했다. 정부나 여성기금에서 큰 도움을 주었지만, 가스펠 가수 홍순관 씨의 역할이 컸다. 그는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를 몇 달간 돌면서 모금하여 마련한 6,000만 원 전액을 여기에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각종 캠페인이 벌어지고 대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법정이 열렸다. 논문집이 출간되었으며 사이버 캠페인도 있었다. 검사단이 조직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영상무리 준비되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었고, 국제판사단과 국제검사단의 초청이 추진되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기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 일본에서 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지내고 귀국했다. 재판 파운데이션 초청으로 일본의 시민사회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2000년 여성법정의 준비모임에 합류했다. 이미 몇 년에 걸쳐 땀흘려 일해오던 동료들이었다. 미안함에 뒤늦게라도 합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은 기소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냈다. 사실 군위안부가 생겨난 곳은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역시 최고 피해국은 한국이었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연구나 국제적인 활동을 해 온 나라 역시 한국뿐이었다. 우리가 쓰는 기소장이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 당일의 발표방식이었다. 그 방대한 기소장을 그냥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인상적으로 기소내용을 재판부와 방청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검사단의 고민과 준비가 별로 없었다.

또 하나의 남북합작 - 남북공동검사단

법정이 공식으로 열리기 4, 5일 전에 우리는 도쿄를 향해 출발했다. 도키사카 기

독교센터에 여장을 푼 우리들은 곧바로 기소발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발표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체제로 바꾸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 속에 사진과 도표, 간략한 요약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속에 사진과 도표, 간략한 요약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몇 일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다.

더구나 문제는 재판부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증거를 요구한 일이었다. 결코 모의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소한 히로히토, 도조 또는 미나미가 무죄를 선고받는다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많은 돈을 들인 이 행사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뿐만인가. 남북공동기소를 한 마당이니 법정에서도 함께 해야 했다. 법정이 열리기 이틀 전에 비로소 북한대표단이 도착했다. 함께 서로가 준비해온 것을 꺼내어 듣고 보니 도저히 함께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몇 시간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다. 북한에서는 일조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 터라 정신대문제가 주요한 현안의 하나였다. 그러다 보니 외교전략으로 이 행사를 이용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긴 배경설명을 하겠다든지,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전체 프리젠테이션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영성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마침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담당자와 시간을 엄격하게 정한 것이었다.

1부 전체사회 및 기소요지 - 박원순(5분, 남한)

기소배경 - 홍선옥(10분, 북한)

2부 강제연행 및 위안소 생활

하중문(7분, 남한) : 비디오(3분)

황호남(북한) : 박영심(비디오, 15분) 하상숙·송신도(파워포인트, 15분) 김영숙(증언 10분)

강정숙(남한) : 김복동(비디오, 3분) 문필기(증언 12분)

3부 귀국 후 상황(전체 30분)

양현아(남한) : 안법순(남한)

(북한) : 상처에 관한 슬라이드

양현아(남한) : 비디오 및 멘트

4부 결론

조시현(남한) : 개인책임(10분)

북한측의 주장(3분)

정남용(북한) : 국가 책임(10분)

일본 우익의 시위

이렇게 세 시간에 걸쳐 남북한 공동검사단의 기소가 끝났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전 유고전범재판소장) 재판장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몇 차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소 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재판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물론 남북공동검사단의 기소가 다른 여러 나라 검사단에 앞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드러난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크게 감동한 모양이었다. 3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인 크리스틴 친킨(런던대 법대 교수)은 줄곧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남북공동검사단의 기소가 끝나고 단하로 내려오는 우리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주었다. 대만측 검사들은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적이 걱정이라고 했다. 도저히 남북공동검사단만큼 잘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나는 무거운 짐을 벗는 느낌이었다. 후련하기 짝이 없었다.

오후에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계속 법정 안에 머무르는 사이에 구단회관 주변에는 일본 우익단체들이 나타나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회관 안으로 난입하지 않고 주변을 차량으로 돌면서 요란하게 떠들었다는 것이다. 우익단체들은 보통 차량에 성능 좋은 마이크를 달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당장 큰 사고가 터진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행사를 주도한 일본 여성운동가 마쵸이 야요리가 은근히 걱정되었다. 한때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까지 지낸 그녀는 일본과 아시아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다. 일본의 한복판, 황거에 이웃한 이곳에서 천황을 기소까지 하였으니 그녀의 안전을 빌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준엄한 심판 - 12·12판결

육군대신이나 해군대신 등 군 최고책임자로부터 전황보고를 받았던 히로히토 천황은 군 예산을 들이고 군인을 배치한 위안소 설치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전쟁 당시 각종 국제법과 관습법이 강간·노예제도·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던 만큼 일본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위안부의 모집 경위에 대해서도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강제성이 명백하며, 위안부 소송에 군함 등을 이용했으며 모집책이 군속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국가간 협약이 개인의 권리를 방해하지는 못한다. 한국과 대만이 당시 식민지로서 일본국이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범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제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명한 사죄, 적절한 보상, 철저한 조사, 관련문서 공개, 교과서 등을 통한 교육 등 10개항을 권고한다.(...)

맥도널드 재판장이 두 시간에 걸쳐 판결을 선고하는 순간, 각 국에서 온 피해자 할머니들은 기립박수와 함께 뜨거운 눈물바다를 연출했다. 반세기를 참아온 눈물이었다.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이들은 아픈 기억과 슬픔의 고통 속에 서로를 껴안고 얼굴을 부본다. 이를 지켜보는 2,000여 명의 방청객들 또한 기쁨의 환호를 보냈다.

2000년 여성법정이 개막된 지 닷새 만인 12월 12일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검사단이 제기한 모든 기소 사실을 거의 완벽하게 받아들인 셈이다. 수석검사단과 10개국의 아시아 피해국 검사단이 기소한 27명의 피고인과 일본정부에 대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히로히토 일본천황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도에 대한 죄를 범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는 최초로 전범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애써 모든 책임을 부정해왔지만, 이렇게 하여 히로히토와 일본정부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을 집행할 아무런 체제도 권력도 없지만 그것은 힘없는 힘, 집행력 없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카하시 데츠야 동경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것 “역사적 정의가 뒷받침되는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민간법정 대 국가법정

그러했다. 사실 이번 재판은 어디까지나 민간법정이었다. 어떠한 법적 권위나 국가적 권력을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강제수사권이나 소환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서 이들을 실제로 사형집행하거나 투옥할 수도 없었다. 주최측은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참석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강제소환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판은 모의 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나 여러 정부들이 중대한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때 이런 종류의 민간법정들이 개설되곤 한다. 미군의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학살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버트란트 러셀, 사르트르 등 세계적 지식인들이 구성한 ‘러셀 코트’가 바로 그것이다. 다국적 기업 유니온 카바이트사에 의해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인도의 보팔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인도에서 민중법정이 열리기도 했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민중재판이 이들의 총회가 열린 도쿄에서 열리기도 했다.

민간법정은 법적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도덕적 권위가 있다. 이번 재판 역시 민간법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아시아의 언론뿐만 아니라 CNN을 비롯한 국제적 언론들이 몰려들었다. 이름 없는 다큐멘터리 작가들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정작 일본의 우익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나 「산케이신문」 등은 거의 침묵을 지켰지만 세계적 관심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들의 보도에 의해 반세기 전 일본의 범죄는 날날이 폭로되었다. 아시아 10개 피해국의 피해자 할머니 70여 명, 검사단 40여 명, 전세계여성단체 등 NGO관계자들이 운집한 이곳은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민간법정의 진정한 힘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터잡

고 그 여론의 힘에 의해 세상의 모순과 오류를 바꾸는 것이다.

역사의 심판과 정신대문제의 미래

위안부문제는 코소보나 르완다의 성폭력이나 인종청소와는 비교가 안되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쟁범죄이다.

27명의 전범을 기소한 국제검사단의 수석검사 패트리샤 셀러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세계에는 아직도 결코 과거로 돌려버리기에 어려운 현실이 널려 있다. 코소보와 르완다의 비극은 바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아직도 그때 흘린 피가 마르지 않고 흥건히 지구의 한 땅덩어리를 적시고 있다. 이 2000년 여성법정은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일본정부가 부정하고 일본언론이 축소보도한다고 해서 부정되고 축소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가 미래의 일본세대에게 그 범죄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에서 지워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국민들을 무지와 혼돈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일본국민들은 더욱 세계에서 고립되어나갈 것이며, 오랜 옛날의 범죄에 대한 원죄의식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정의를 향해 여성해방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 전범들에게는 처벌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인간존엄과 명예를!

조상록(정의평화와 인권센터 정의사상 상록주의 연구소,
내외환경뉴스 해외총국·광주전남총국장)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피해 당한 꽃다운 여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동포라는 점을 떠나서도 시대와 국가적인 차이일 뿐 어찌면 군사독재권력의 같은 피해자라는 점에서 나와 인연이 닿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지금부터 23년 전 중앙 정보부의 고문폭력에도 또 0.75평의 21년간 감옥생존시에도 사랑스런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잃은 슬픔을 제외하고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나였지만 동경에서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열리는 동안 연일을 나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나는 소위 재일 유학생 사건으로 박정희 군사독재권력의 폭력고문에 의해 강제 구금되어 21년간 감옥에서 생존하다가 지난 1999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었지만 현재까지 정치적 사면복권이 되지 않고 있어 형 집행정지 상태이며 보

안관찰법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석방된 후 그 동안 3번이나 여권을 신청했지만 발급되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검사장의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서 12월 5일 오후 5시에 국정원에서 늦게나마 신원조회가 떨어졌고 12월 7일 국제법정 전야제가 있었는데 12월 5일 오후 5시를 지나서 여권이 나와 광주시청 여권과 직원이 누님 덕에 여권을 가져다주어 광주에 사시는 나의 조점순 누님께서 저녁기차로 서울로 가져오셨고 새벽 5시 30분 경에 받아서 6일에 비자신청을 하고 7일 오전에 비자가 나와 어렵게 오후 비행기를 타고 동경에 도착했다. 그 동안 정대협 의 실무자로 협조해준 이정이씨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비전향으로 감옥에서 나와 보안관찰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있는 나의 경우 여권이 나와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회성의 단수여권이지만 주위사람 얘기들처럼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어렵게 참가할 수 있었던 만큼 참으로 뜻깊은 참가였고 더욱이 이선화씨와 따로따로 출국했지만 부부가 함께 참석한 만큼 감동도 배가된 국제법정이었다. 그리고 참가자 중에 홍옥주 시인은 산 역사교육을 위해 3명의 사랑스런 자녀들을 동반하여 참가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특히 이번 국제법정에서 의의 깊었던 일은 통일분위기를 타고 남북이 공동으로 기소했다는 점이고 이 분위기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가해자 증언으로 당시 일본군 군인출신의 솔직한 증언은 군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제연행을 입증해 주었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었다. 법정에서 만난 전주의 김해룡 교수는 행동연대에서 할머니들을 무대 위에 설치된 피켓에 서명하도록 할 때 경우는 다르지만 같은 군사권력의 피해자로서 나에게도 서명하라고 권하여 서명을 했다. 이는 피해자로서의 서명과 함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국가 공식사죄와 배상,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일본군국주의 전범들의 유죄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등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잘못된 국가권력과 가부장제 구조 하에서의 여성들의 해방과 평등을 위하여 함께 한다는 다짐이었다. 꼭 구별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도 선량한 평화 애호민들과 연대하여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평화와 해방을 쟁취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남북을 비롯 피해자 국가들과 취재진을 포함 2000여명의 참가자들과 공통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순간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뜨거운 한가족으로 만들었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동경에서 열린 극동재판소에서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바로 잡아 히로히토를 포함 전범들의 유죄판결과 일본의 공식사죄, 국가적책임배상하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정의의 광장임을 확인케 했다.

히로히토가 살던 궁성과 전범들의 묘지인 야스쿠니신사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구 단회관은 일본의 재향군인의 유족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호텔로 이곳에서 2000년 국제법정이 개최되어 역사적인 의의가 더했고 인간존엄과 평화의 무궁화 꽃이 피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어 생생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군국

주의 권력의 희생임을 일깨워 국제법정에서 침착하면서도 분명하고 당차게 증언하여 여러 피해국가 증인자들에게 용기를 주게끔 오랫동안 노력해온 정대협 의 김윤옥, 윤정옥, 지은희 공동대표들과 양미강 총무, 이정이, 정은정, 고미령, 진현정 여러 실무 일꾼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감사를 보낸다. 또한 일본에서 국제법정을 빈틈없이 준비해준 VAWWNET-JAPAN 의 마쓰이 야요리 대표를 비롯 여러 회원들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국제법정 판사단과 검사단, 각국 검사단들과 변호인단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모범적인 기소장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보여준 남북검사단과 실무진 여러분들에게도 박수와 고마운 인사를 보낸다.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본군 전범들의 간교하고 잔악함은 잘못된 제도에 인간성이 매몰되어 버린 것이고 올바른 정치철학의 부재임을 확인하게 한다.

정의평화와 인권보장과 통일조국 자주 민주화와 자유·평등·해방의 인간중심 풍성한 자연환경 이룩하여 정의사상 상륙주의 밝은 사회 다함께 건설하자.

잘못된 제도와 정치철학 부재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아동과 여성들에게 인권이 보장되는 밝은 세상과 할머니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인간존엄과 평화, 정의와 여성을 위한 통일적인 국제독립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남북공동기소를 계기로 남북의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하며 20여 년 전 감옥에서 쓴 '상륙주의 통일조국에서 민족동포의 만남'을 노래한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는가

그 누가 우리를 가로막는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민족동포 지척에 두고

그리워 그리워 울어 지새던 갈라진 근 반세기

무엇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단결 민주보다 우선 할 건가

그 무엇이 민족보다 우선 할 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그리운 통일강산

더 이상 늙기 전에 살아생전에

더 이상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제는 오가야 한다 만나야 한다

우리는 한겨레 한나라

오가야 한다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척 친지들

7천만 민족동포 얼싸안고 만나야 한다

정의의 온 세상 밝혀 영원한 행복으로

민족동포 함께 만날 정의사상 상륙주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고 할머니들을 비롯, 정

대협 온 가족의 건강을 빌며 2001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하루빨리 할머니들의 한이 풀리기를

이거임(서초중학교 2학년)

얼마 전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작품 「반딧불의 무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태평양 전쟁말기의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해군장교로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미군의 폭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결국에는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이야기였다. 위안부 문제와 「반딧불의 무덤」을 보면서 전쟁을 일으킨자와 점령당한 모두에게 참혹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나는 수요시위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만 전쟁에 끌려가고 생하신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제법정에 어머니를 따라 참석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파괴시켰는지를 보았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심지어는 네덜란드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내 동생과 같은 나이인 12살짜리 어린이도 끌려가고 그런 일에 내무장관, 육군장관이 가담되어 있고 국왕이 승인했다는 증거를 검사들이 보여 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역사신문」이란 책에 4명의 위안부가 찍힌 사진이 있다. 그중 임신중인 한 사람이 찍혀있었는데 바로 그 분이 북한에서 오신 박영신 할머니였다. 나는 그 할머니를 직접 보았다. 안법순 할머니는 패전 뒤에 일본군이 버리고 가서 나뭇잎을 삶아먹고 살았다고 증언하셨다. 일본군은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버리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쟁 후에 위안부 문제로 한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동티모르에서 온 수아레스 아주머니는 민병대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우셨다. 아마도 이러한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범죄는 계속될 것 같다.

어머니(편집자주: 정대협 자원활동가인 홍옥주 시인)께서는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상징적인 법정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렇게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소하면서 법정이 열린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다. 내가 여기에 참가하여 증인과 증거물들을 직접보고 만난 것은 정말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날 센다가야에 있는 청년회관에서 판결문 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할머니들은 단 위에 환호를 하셨지만 황금주 할머니께서 흐느끼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법정이 시작된 첫날 점심시간, 우익단체들이 차를 끌고 와서 법정이 열리는 도쿄 구단회관 주위를 돌던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날까지 주변에서 시위를 했다. 우익단체들이 나눠주었던 쪽지에는 “결코 종군위안부는 없다”고 쓰여 있었다. 당시 일본군이었던 요시오 쓰즈키 증인이 법정에서 “입대했을 때 주둔지마다 위안소가 있었다”고

증언까지 했는데도 우익단체들이 준 쪽지에 “매춘업자들의 소행”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기가 막혔다.

이번 법정을 제안하고 열도록 도와준 마쓰이 야요리 아주머니같은 분도 있고 제 443차 수요시위에 와서 할머니들을 위하여 연주해준 다이지로와 멜라같은 일본인도 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국민들보다도 못한지 이해가 안 된다.

하루빨리 사죄하여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2000년법정과 나

박민희(한겨레신문 교육공동체부 기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열면 기소가 이어졌던 법정 장면이나 참석했던 사람들의 얼굴보다는, 그곳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아직도 나의 몸 속을 맴돌아 아프다. ‘기록자’라는 나의 직업상 계속 듣고 메모하고, 하루 하루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써서 전송하느라 고개를 들고 있었던 시간보다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던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 귀라도 막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직접 당했으면서도 사죄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증언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곳에서 만났던 잊지 못할 많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지난해 10월말 편집부에서 지금의 ‘교육공동체부’로 와서 여성부문을 맡았다. 그리고 첫 취재가 이 법정을 준비하느라 판사단 회의를 끝내고 헤이그에서 긴 비행 끝에 돌아온 성신여대 조시현 교수를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녹초가 돼 도저히 못하겠다”는 조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내용과 법정 준비상황 등을 묻고 나서 시계를 보니 무려 1시간 반이 지나 있었다. 너무 명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 조 교수를 도쿄 법정에 가서야 처음 만났다. 지금도 그 인터뷰에 대해 감사 드린다.

이 법정을 준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간사들, 양미강 총무님,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대표님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신문사가 정대협과 법정을 공동주최하게 돼 특집기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여성을 말고 겨우 며칠밖에 안된 나는 그들에게 계속 묻고 또 물어 기사를 써나갔다. 그 법정에 대한 그들의 열의가 내가 이 법정에 대해 진지하고 열심히 취재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드디어 12월7일, 거의 매일 함께 잠들던 세 살 짜리 우리 딸 가은이를 일주일이나 못 본다는 데 가슴 아파하며 “가은아, 엄마 일곱밤 자면 꼭 올게. 힘내”하고 딸보다

는 나에게 다짐하며 도쿄로 출발하며 솔직히 떨렸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잘 할 수 있을까. 오후 늦게 구단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문 1판 마감시간은 지나 있었고, 서울에서 내 도착 보고를 들은 부장의 얼굴은 전화 너머로 붉어져 있었다. 전 송선이 제대로 설치 안돼 찍어놓은 사진도 8시가 넘어서야 보낼 수 있었고, 종이에 이것 저것 내용을 적어 팩스로 보내고, 국제전화를 걸어 내용을 보충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날 개막식에서 나는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만났다. 떨렸나? 사실 보자마자 빨리 이 사람한테서 얘기 듣고 기사 보내야 한다는 절박감에 낮가림할 시간도 없었다. 종태위 서기라는 분에게 뻘뻘스럽게 명함을 내밀면서 말을 걸고, 홍선옥 위원장이 나타나자 거의 몸을 날리며 달려가 남북이 공동기소하게 된 소감 등을 묻느라 바빴다. 그들은 말을 자신 있고 똑 부러지게 하지만 속내를 들어내는 데는 조심스러운 듯 했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남북 공동기소를 하던 둘째날 “오늘이 제일 중요해. 잘해야지” 아침부터 다짐했다.

검사단의 준비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남북 검사들이 돌아가며 다각도에서 보여준 기소내용과 자료 등이 인상적이었지만, 할머니들의 증언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없을 것이다. 12살 때 끌려가 너무 어려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일본군이 성기를 칼로 찢어 강간을 했다고 증언하시던 할머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이며, 임신했지만 성병으로 아이가 배속에서 썩어버렸다는 기억, 어린 소녀들이 당한 그 일들은 고통에 찬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그 기억을 떠올려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의 육성은 예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내 인생을 돌려달라, 난 여기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할머니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영상으로 증언한 필리핀 할머니들도 지워지지 않는다. 부모를 죽인다고 위협하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지만 돌아와 보니 가족은 일본군에게 다 죽고 불타고 있던 마을... 그들의 말에 따라 그 공포에 가득찬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다.

마지막 날 공청회는 아직도,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에게 묻는다. 장막 뒤에서 얘기하던 부룬디의 19살 소녀는 친구 집에 가던 길에 납치됐다. 두 부족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 소녀가 속하지 않은 부족의 병사들이 무장을 한 채 “네 부족이 나쁘니까 너한테 보복한다”며 그 어린 소녀 하나를 묶어두고 일주일 넘게 강간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풀려나온 그녀는 도움을 청하러 갔던 자기 부족 병사들한테서마저 강간을 당하고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울었다. ‘이럴 수는 없어, 사람이 이럴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본다. 과테말라에서 고등학교 때 고문실로 끌려가 너무 심한 강간과 폭행을 당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나 죽지 않았”고 정신병에 시달리며 여러 나라를 떠돌며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게 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씩씩한 아줌마도

기억난다.

일본 여성단체 바우넷 재팬의 마쨌이 야요리는 인터뷰를 잡기도 힘들었고 법정 시작되기 전 9시에만 시간을 잡을 수 있어 혈레벌떡 뛰어야 했다. '아사히신문'의 기자로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60이 넘는 나이에 겁없이(?) 우익들의 위협에 맞서며 이번 행사를 주도한 사람. 아시아의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신문기자로서, 대선배로서 참 열심히 살아온 그가 나는 많이 부러워졌다.

나중에 만난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인이 "일본 우익들은 정치권과 야쿠자를 잇는 끈이며 보통 일본사람들은 우익에 관심이 없거나, 실상을 알아도 침묵하거나 둘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고 말해줬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쨌이 야요리나, 위안소에 갔던 경험을 증언하러 나온 두 일본군 병사출신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들 특히 언론쪽 일을 맡은 하라 유리코씨 등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일본인'이란 범주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걸까 궁금해졌다. 또 일본의 진보운동이나 여성운동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졌다.

수석검사였던 미국인 패트리샤 셀러스는 멋진 레게 머리에 긴 검은 가운이 잘 어울리는 한눈에 보기에 멋진 여성이었는데, 특히 "증인들이 나를 짓눌러 아직도 마음이 떨린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 끌고 갔다. 심지어 12살 어린 이까지 성노예가 됐다. 그 범죄의 정점에는 일본 국왕이 있었다..."는 최종기소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를 인터뷰하라는 부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매일 검사실에 앉아 있는 그를 인터뷰하느라 가장 많이 힘들었다. 당당했지만 약간은 냉정했던 그녀와 멋진 통역으로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정대협 자원봉사자 박연정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다니며 취재한 <여성신문> 이김정희 기자, 항상 전송선을 빌려준 <오마이 뉴스>의 박수원 기자, 사진을 도와준 최성욱씨 "고마웠어요."

법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열린 정리모임에서 윤정옥 대표는 "이제 할머니들 명예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정대협 일을 하면서 10년을 사는 것보다도 때로는 한순간이 훨씬 뜻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 남에게 베풀고 갑시다. 아시아 평화기금 그런데 연연하지 말자"고 말씀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셨다. 10년 전 윤대표가 사할린 필리핀 중국 일본을 다 돌아다니면서 잊혀졌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내고 만나고 그 글을 우리 신문에 연재하셨다는 것을 이번 법정을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다. 내 손을 잡아 주시던 윤 대표의 가냘픈 손의 특별한 느낌이 아직 남아 있다.

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일본 우익들과 이번 법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택시 기사 아저씨, 침묵하던 일본의 언론들과 정치인들에 얼마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던 일본 고고학자의 얼굴이 겁친다. 이미 저지른 역사의 잘못을 지울 수는 없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역사는 기록한다. 현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에 있다. 과

거를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가 현재 일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감추고 발뺌하고 피해자가 약하다고 무시하는 추태는 추악한 역사를 더욱 추악하게 덧칠한다. 아시아를 무시하면서도 서구에 주눅들고 돈으로 그것을 만회하려는 일본인 일부의 불안한 심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이다.

신사건 관광지건 얼마다 돈을 내고 소원을 써서 묶어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할머니들의 한맺힌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아이가 말귀만 알아들으면 가르친다는 일본인들과 그들의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한 짓은 무엇인가.

아직 갈 길이 멀다.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세계 여론환기, 나아가서는 남녀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 등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는 많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정답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는 알 수 있다.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와 법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순간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12월7일-12일, 동경)」에 붙여

김해룡(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정의를 구현해 몸서리 쳐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여성 단체들의 활동을 나는 오랫동안 불편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만 봐 왔다. '불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여러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할머니들의 문제가 온전히 여성운동가들만의 독점물이 되어 버렸고, 보통의 한국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 들추지 않기' 정서에 나도 젖어 있다는 인식에 마음 편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관한 한 내가 지닌 이 정서는 성이 개재(介在)된 폭력행위에서 남성이 생리적, 필연적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고금의 사실에 내 자신 은연중 주눅든 소치일 터이다. 온 국민이 다 이 위안부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정대협」을 선두로 도맡아 하는 여성단체들이 해낼 테니까 라는 자위를 되뇌어도 불편한 심기는 다스려지질 않았다.

여성들의 활동이 안타깝게 느껴진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어 정의를 세우고, 이런 반인도적인 잔학행위가

지구촌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겠다는 할머니들과 여성단체들의 염원과 투쟁 저 뒷전에 골수 자기비하적 사대주의에 찌든 우리 정부가 일본 눈치 살피며 어정쩡 비겁하게 서있는 것이다. 개살구같은 세계화 추세와 외자유치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할머니들의 원한이 부담스러운 정부, 할머니들의 억장 무너지는 한을 세계 양심에 호소하고 버거운 일본과 드잡이를 벌이느니 넘치는 세금으로 손쉽게 정착자금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나누어주고 손 털어 버린(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정부, 이 정부를 대신한 대리전을 여성들이 치르고 있는 양상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써 버리고도 게워내기는커녕, 무슨 돈인지 모르고 받아냈다고 큰소리치는 국회의원들의 땅, 이 국기를 뒤흔드는 도적질을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정치적으로만' 봉합하는, 도덕적 기본이 서 있지 않은 정부, 이런 정부의 대리전이라니! 내부에 이반 세력을 안고, 그것도 전투를 진두 지휘해야 할 정부를 이반 세력으로 안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말인가? 우리 정부의 이 자기 비하적, 비도덕적 근성을 꿰뚫어보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사죄를 한다고? 이런 상념들로 안타까웠다.

나는 할머니들의 사연에 아파하면서도 그들의 질곡의 역사가 까발려지는 것을 참지 못해 했다. 유린당한 인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육성이 필수적인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인간적 존엄이 배려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배상을 겨냥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내게는, 지지리도 못나 나라 빼앗기고 꽃다운 처녀들을 성노예로 공출당한 한국인의 집단 수치를 세계 만방에 각인 시키는 것으로 비쳐졌다. 만약 일본 정부가 사죄한다고 해도 그 사죄랄 게 뻔할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통석(痛惜)의 념' 운운하는 게 고작일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또 역사 왜곡할 자들이다. 지금 이 순간 일본 땅 밖에서 진행 중인 위안부 관련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이 승소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진심이 담긴 사죄를 할 족속이 아니다. 심증이지만 억측은 아닐 것이다. 천황 혼자만의 정치적 사죄는 의미가 없다. 나는 할머니들의 한이 금전적 배상만으로도 조금은 풀리기를 기원한다.

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내가 느닷없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의 방청석 하나를 나흘 동안 채웠다. 심정적 인사이드는 암묵적 아웃사이드나 진배없다는 자성의 순간, 재판 참관을 결정했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기 만이라도 하자는 심정이었다. 나로서야 할머니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들고 주위에 생생하게 알리는 것 밖에 없지 않으나, 분노하던 포기하던 실상을 접해야 할 것 아니냐. 덤으로, 사안에 대한 직관의 수고 없이 버거우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먹물근성에서 한번쯤은 헤어나 보려 했다. 그리고 그 한번이 습관 되기를 바랐다. 참여로 인해 그간의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심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건 자기 계몽에 따른 보상일 것이다.

“이십 여 만 명 피해 여성들이 속한 국가들이 정의를 구현해야할 국가 본연의 책

임을 회피한 것”에서 「2000년 법정」은 그 개정의 취지를 찾고 있었다. 「법정」은 “여성에 대한 비인륜적, 성적 학대가 전쟁과 정복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극이라는 반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법정」은 두 차례에 걸친 유엔 특별보고관의 엄정한 조사와 그에 근거한 국제 사회의 보상·사죄 권고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생존자들의 절규를 잠재우려는 일본 정부의 비양심적 무책임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이 「법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엄연한 역사적 기록들을 밝혀내 법적 책임과 그에 상응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그들이 인식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법정」은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 인정과 사죄 및 배상이 몇 남지 않은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선결 문제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고고한 개정(開廷)의 취지아래 오십 년의 침묵을 깨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었고 아수라지옥의 광경이 벌어졌다. 양심을 지닌 일본 역사학자 한 명이 그 수많은 위안소(Comfort Stations, 정확하게는 Sexual slavery facilities)들이 일본 군부 수뇌진의 결정과 명령에 의해 조직적으로 설치, 운영되었음을 증언했다. 패전과 더불어 미처 파기하지 못했던 문건들이 입수되었고 그 문건들이 이 사실들을 입증했다. 위안소 설치의 일본 군인들의 정복지 여성들에 대한 공공연한 강간행위를 규제하고 전쟁에 지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었다. 점령지에서의 반일본 저항운동을 최소화하고 일본 군인들을 성병에서 보호하며 국제적 불명예를 면하자는 의도도 한 명분이었다. 아시아, 태평양 전(全) 점령지에 걸쳐 성을 서비스할 여성들을 확보, 공출, 수송할 네트워크가 수립되었고 일본 내무성에서 하달된 명령에 의해 점령지 총독부, 지방조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십 여 만 명의 정복지 여성들이 속임수에 걸려 또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로 포획되어 끔찍한 위안소로 보내졌고 미치광이 군인들의 욕동의 오물을 받아내었다. 저항하는 여성들에게는 공개 윤간, 고문, 신체 부위 절단 등의 처형이 따랐고 임신은 예외 없이 강제 낙태 처리되었다. 질(膣)들은 야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배설해 내는 역겨운 오물로 넘쳐나 병 들고 유혈낭자했으며 생식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할머니들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야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를 역겨우리 만치 생생하게 토해내었다. 증언하던 할머니 한 명이 오열하며 까무러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직 일본 육군 사병 두 명이 증언석에 앉아 자신들이 위안소를 드나들었던 사실을 고백했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일본 군인이었을 것이다. 판사들은 법정에 자신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과거를 증언하는 그들의 용기를 치하하고 감사했으나 그들이 증언하는 동안 나는 온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고백을 하든 숨어 있든 그들은 짐승들이었다.

종전 후 만신창이 몸으로 살아 돌아온 이 위안부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웃들은 이 여성들의 비극을 여성들 자신의 책임으

로 단정했고 수치감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의 세월을 보냈다. 과거를 숨기고 정착한 몇몇도 탄로날 것이 두려워 전전공공하며 침묵으로 일관된 명에 같은 삶을 부지했다. 그 중 생존 필리핀 여인 한 명은 결혼 후 과거가 드러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남편은 “버려진 여자보다는 버려진 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증언에 참여한 각국의 할머니 70여명은 한결같이 오열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보상을 부르짖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전 기간 동안 법정 건물 밖에서는 ‘우익’이라 불리는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의 후예들이 끈질기게 그들 아버지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위안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국 군인들의 전쟁 수행에 참여한 매춘부였으며 남경 학살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그들은 억지 주장을 폈다. 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일본인들은 변절한 일본인이며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자못 위협적으로 법정 건물을 둘러싼 채 외쳐댔다.

이 맹목적 국수주의자들의 떼거리 행동에 더하여 나는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보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부질없는 수고임을 확연히 느꼈다. 그들의 소위 전쟁 영웅들의 혼에 참배하는 일본인들의 몸짓은 짐짓 긴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지에 닿아 위로받고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는 순례자들의 몸짓이었다. 드넓은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신평 특공대의 경비행기와 인간 어뢰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에는 자긍심 같은 게 피어나고 있었다. 신사를 둘러본 두어 시간 동안 나는 여러 번 토할 뻔했다.

「정신대연구소식」 지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민주, 공산, 사민당 등 세 야당이 피해 위안부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은 위안부 문제를 ‘옛 일본 육해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성적 행위의 강요’라고 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명할 것과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세 당의 의원 수는 94명이며 이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하려면 3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입법은 불투명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땅에서도 양심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무적인가. 사태를 이 정도까지 진전시킨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 단체들의 노고와 끈기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이제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나서는 체라도 해야 할 때다. 일본과 세계의 양심 세력을 규합해 일본 의회에 압박을 가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도 자국민, 특히 여성들이 타국인에게 당한 비인간적 학대를 간과하지 않는 뿌리 깊은 민족임을 보여야 할 때다. 달라야 라마도 초청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과한 요청이기는 하다.

정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다 그 정조를 공출 당한 이 땅의 위안부 할머니들. 이들이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나눔의 집」에 정착하기까지 부지했던 50년 질곡의 세월이 눈 위에 바람 스쳐가듯 흔적 남기지 않고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게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직시해야 할만큼 깊은 오욕의 상흔을 역사에 새겨 넣은

것이다. 때가 무르익었다. 지금 실기(失機)했다가는 이 오욕의 상흔을 영원히 치유 못할지 모른다. 그래서야 민족의 자긍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포기를 하려면 세계 주요 공항들 내에 설치된 가장 눈에 잘 띄는 광고판들 사서 저들의 만행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용서한다고 천하에 공포라도 해야 할 일이다.

「정대협」은 더 이상 수요집회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할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청사 앞에서 해야 한다.

6. 언론보도자료

○ 2000년법정 국내외 미디어 활동보고

【국내 미디어】

1. 2000년 11월 10일(금) MBC 라디오 초대석, 신혜수 위원장
2. 2000년 11월 15일(수) 중앙일보, 양미강총무
3. 2000년 11월 16일(목) 기독교방송, 김윤옥 대표
4. 2000년 11월 17일(금) 교통방송 스튜디오1039, 김혜원위원장
5. 2000년 11월 22일(수) MBC라디오 여성시대, 김윤옥대표
6. 2000년 11월 22일(수) 한겨레신문 기획기사, 윤정옥대표 특별기고
7. 2000년 11월 25일(토) 국민일보 여의도초대석, 양미강총무
8. 2000년 11월 27일(월) KBS라디오, 윤정옥대표
9. 2000년 12월 6일(수) 한겨레신문 광고, 문화일보
10. 2000년 12월 7일(목) 한국일보
11. 2000년 12월 8일(금) KBS, MBC, SBS 뉴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12. 2000년 12월 9일(토)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13. 2000년 12월 11일(월) 동아일보 시론 김윤옥대표
14. 2000년 12월 12일(화) KBS, MBC, SBS 뉴스,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15. 2000년 12월 13일(수)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16. 2000년 12월 14일(목) 부산교통방송, KBS 가로수를 누비며, 양미강총무
17. 2000년 12월 15일(금) 교통방송 교통시대, 신혜수위원장, 대구교통방송, 양미강총무
KBS 라디오생방송 오늘, 조시현교수, KBS 라디오 뉴스매거진
조시현교수
18. 2000년 12월 19일(화) 한겨레신문
19. 2000년 12월 22일(금) 여성신문
20. 2001년 12월 4일(화) RFA(한원상 YTN기자)
21. 2001년 12월 5일(수) 평화방송 인터뷰(양미강 총무)
22. 2001년 12월 5일(수) KBS라디오정보센터(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인터뷰)
23. 2001년 12월 5일(수) YTN뉴스보도
24. 2001년 12월 6일(목) 연합뉴스를 비롯한 각 언론사 기사보도
25. 2001년 12월 6일(목) 동아일보 기고(김윤옥 상임대표), 기사
26. 2001년 12월 6일(목) 기독교방송 시사자키 인터뷰(양미강 총무)
27. 2001년 12월 10일(월) 한겨레신문 기고(심영희 교수)
28. 2001년 12월 10일(월) 세계일보 기고(양미강 총무)

29. 2001년 12월 11일(화) 여성신문 인터뷰(윤정옥 명예대표), 특집기사
30. 2001년 12월 12일(수) YTN뉴스
31. 2001년 12월 20일(목) 우먼타임즈 기고(양미강 총무)

【국제 미디어】

1. 검사단 및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 (1) 일시 : 2000년 12월 7일 오후 3시~4시
 - (2) 장소 : 에드문트 호텔
 - (3) 내용 : 2000년 국제법정의 의의와 경과
 - (4) 참가 : 각국 참가단, 기자단 및 외신 100여명
2. 위안부 피해 생존자 기자회견
 - (1) 일시 : 2000년 12월 7일 오후 4시 30분~5시 15분
 - (2) 장소 : 에드문트 호텔
 - (3) 내용 : 피해 8개국 생존자(일부) 소개 및 생존자들이 법정에 바라는 내용 발언
 - (4) 참가 : 각국 생존자, 참가단 및 기자단
3. 남북 공동 기자회견
 - (1) 일시 : 2000년 12월 8일 오후 5시 20분~7시
 - (2) 장소 : 미디어룸(1차), 법정 내부(2차)
 - (3) 내용 : 남북 공동기소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4) 참가 : 남북공동검사단, 증언자, 남북 대표단, 각국 기자단
4.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인터뷰
 - (1) 문필기 할머니(워싱턴 포스트지, 12월 6일 오후 7시~8시)
 - (2) 황금주 할머니(BBC 도쿄지사, 12월 9일)
 - (3) 김은례 할머니(프랑스계 잡지사, 12월 9일)
 - (4) 진화순, 이용녀 할머니(라디오 스웨덴, 12월 9일)
5. 최종판결 기자회견
 - (1) 일시 : 2001년 12월 4일 오후 2시
 - (2)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루센트 극장
 - (3) 내용 : 최종판결의 의의와 향후 방향
 - (4) 참가 : 판사단, 검사단, 피해자

○ 인터넷 신문 보도자료

인터넷 한겨레 보도 1999년09월01일13시20분 등록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한맺힌 사연 죽기 전에 풀어주겠다"』

“...여보게나 젊은이들, 말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려는 정신대 늙은이들 영원히 가기 전에 한 맺힌 사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지 않겠다. ... 무명치마 무명저고리 순박한 우리 한국 여인네들 강제로 끌려다 그 멀고 험한 전쟁터에 성노예로 끌고 다녔던 일본군 군인들...”

지난 26일 오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교육관. 한 여학생이 글귀 하나하나마다 한이 서린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내려 갔다. 편지는 곧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낭독됐다.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학생법정) 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과 일본 대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숍은 양국 대학생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일대한국 기독교회 총회신학교 신현석 교수와 정대협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워크숍에는 신 교수에게 기독교학을 배우는 일본 오비린대 학생 10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6개 피해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개최하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2000년 법정)에 앞서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모의법정을 열기 위해 올 초 각 대학 총여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준비모임이다. '2000년 법정'은 내년 12월 도쿄에서, '학생법정'은 내년 4월 서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 참가를 시작으로 이틀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의미와 학생법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으나 늦은 밤까지 토론이 이뤄지면서 서서히 그 간격은 좁혀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일본 학생 가운데 유일한 남학생인 사토 미즈구(경제 4)는 “한자리에 처음 모였을 때와 헤어져야 하는 지금 우리 일본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며, “일본에 돌아가면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다른 일본 학생들도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런 역사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 입을 모았다.

양국 대학생들은 이틀 동안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법정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정(24·여)씨는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관계를 떠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 차원에서 함께 다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계속 일본학생들과 연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1999/8/14 경향신문 17면

『한·일 대학생 '정신대 만행 고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2차대전 중 일본군의 정신대 만행을 고발하는 「2000년 학생법정」을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는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명지대 등 국내 50여 대학 여학생 모임과 일본 오비린(櫻美林)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한 「2000년 학생법정 준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 4월 열릴 이 학생법정에는 피해자측인 한국과 가해자 측인 일본의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참여, 정신대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다양한 문예·학술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준비위 측은 이들 국가 외에도 대만, 필리핀 등 정신대와 관련된 아시아 지역 대학생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인 정은정씨(24·여)는 『심포지엄, 퍼포먼스, 전시회, 연극 등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참다운 반성을 촉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학생들은 모의법정의 예행연습격으로 오는 25일부터 2일 동안 정대협 교육관과 송실대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캠프」를 연다. 각각 15명 가량이 참가해 정신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준비위원장은 『학생법정이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신대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 대학생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대학연합 캠퍼스 신문

『캠퍼스 화제』

‘국제학생법정’ 위안부문제 해결위한 새로운 시도 펼쳐

‘신가이드라인’과 ‘자위대법 개정’ 등 현실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범국가로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의 책임을 회피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일본.

특히 우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오른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법적인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한 것이 우

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 남북해외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 젊은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형식 또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학생법정)을
2000년 4월에 진행합니다』

'학생법정'은 아시아 각 국 젊은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지향점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1월부터 3, 4개 대학으로 시작한 학생법정 준비활동은 현재 남한 30여 개 이상의 대학과 이북, 해외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행사를 남북해외 3자가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전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대협은 한·일 학생들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일 학생 공동 '전쟁과 여성'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학생법정이 '모의재판' 외에도 인권문제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 문화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면, '법정'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살려 일본의 부도덕성을 알려내는 방법으로 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기획되고 있다. 이 국제법정의 준비노력에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 세계 인권의 날과 태평양전쟁 시작의 날인 12월 8일을 전후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전쟁과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역사를 21세기에 돌이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물론, 이 법정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실제 법정도 아니고 국가차원의 권위가 실리는 법정도 아니다. 배심원들도 대학가 주변 하숙집 아주머니나 음식점 주인 등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 정부 또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일본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남한을 비롯한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6개 지역의 피해국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학생법정은 '법'정이라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정대협에서 밝히는 '국제법정'의 힘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대협에서는 피해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의 법률 및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과 법적 배상을 미루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부도덕성을 만방에 폭로할 것입니다"

정대협은 남북 해외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는 '국제학생법정'과 국제적 전문

가들의 참석으로 이뤄지는 '국제법정'의 성과가 단순한 모의법정에서의 일이 아닌 '역사의 법정'앞에서 일본의 행적이 피해국과 민중들에 의해 심판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겸신 기자

가톨릭대학교 학보

청년들이여, 희망을 일구자

『인터뷰 - 정은정(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학생법정 준비위원장)』

정부나 보수언론들이 정신대문제를 한·일 협약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할머니들은 이렇게 외친다. "사회 차원에서 '돈만 받고' 끝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외치고 통곡하는 것인가."

이들의 통곡에 귀 기울이고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그 멀고도 험한 희망을 일구는 청년들이 있다. 오는 2000년 4월 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학생 모의법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은정(25) 학생법정 준비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정신대 문제를 주제로 '학생모의법정'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그 준비과정이 궁금하다.

△ 원래 정신대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 활동하던 중, 일본 오비리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신현석 목사님이 데려온 일본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법정을 꾸리자는 의견이 모아 졌다. 지난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오는 9월 29일(수)에 정식위원회를 위한 발족 식을 갖게 된다. '학생모의법정'은 한·일 관계와 같은 민족주의 문제와 여성문제를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구성원은 약 15명으로 분과는 학술·법률·문예·기획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예를 기획분과에 포함시키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분과, 홍보와 기록을 위한 편집분과를 추가할 예정이다.

▲ '학생모의법정'은 하나의 극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방식과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가.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정신대 할머니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축이 될 것이며 일본 학생들도 직접 초청,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변호사나 여성운동가들도 초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입장에서 벗어나 할머니들이 돌아와서도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문제를 다룰 것이다. 즉, 한국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또한 조금 특이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배심원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수)에 예행연습격으로

‘여성인권 캠프’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인들의 민족주의적 입장때문에 충돌이 많았다. 대부분이 NGO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대’라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위안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들을 만나 뵙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그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건의하거나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일본인들에게도 이 현실을 알려줬다고 말한 것은 한 성과이자 본받을 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 정부와 일본의 반응 및 각계의 반응이 궁금하다.

△ 정부 반응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북자를 감시하기 위해 정부기관원이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정대협이 이호재 선생님이 방북할 때만 정부기관원이 따르지 않았던 사례로 보아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반응인데, 일본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 대자보를 붙이거나 소송을 건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집단적으로 일하는 소위 ‘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한국의 학생운동을 좀 신기하게 보는 편이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큰 힘이 된다.

▲ 정대협은 지난 8월 남북한의 ‘군대위안부 피해 공동진상규명조사단’ 구성을 북한에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문제도 많이 관여되어 있는가. 더불어, 정신대 문제를 토대로 여성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허난설헌이 동생인 허준보다 더 능력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예술가였다는 것을 아는가? 그러나 역사는 남성의 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성이 능력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뿐 아니라, 21세기를 여성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보다 큰 여성인권 향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동질성 회복’이 중요한데 조그만 부분이라도 함께 한다면 좋을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인터넷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것이며 곧 ‘학생법정’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위안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직도 위안부냐?’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세계인권 보호 주요 안건으로 이 문제를 포함시킬 정도로 외국에서도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김나현 기자

2000/5/1 경향신문 17면

『 [현장클릭] 정신대 ‘이색판결’ 』

“피고에게는 평생동안 입을 열 기회를 박탈합니다. 또한 손과 발을 묶어 기본적

인 생계유지 활동 이외에는 다른 행동을 못하도록 선고합니다.” 5월 29일 오후 3시 이화여대 강당. 일본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에서 대학생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되자,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모의재판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일본인과 당시 위안부 설치 책임자인 히로이토 전 일본국왕은 물론 가부장제적인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를 가해자로 내세웠다. 정대협 고미령 간사(27)는 “정신대 문제는 과거의 만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이 끊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200여 명 관객들은 검사와 변호사,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치열한 설전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지켜봤다. 특히 배심원으로 참석한 5명의 일본학생들은 한결같이 “정신대 문제의 책임은 당시 히로이토 전 일왕에게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게이코 다카하시씨(24)는 “정신대 문제는 민족의 문제, 인권의 문제, 성(Gender)의 문제 등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차례로 무대에 오른 정신대 할머니들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중간중간 말을 잊지 못했다.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황금주 할머니(81)는 “이렇게 오래도록 사죄를 요구했는데, 염치가 있다면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초등학교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행사에 참가한 김혜숙 씨(50)는 “어릴 때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찾았다”며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인터넷한겨레

『 [여성] “일본 국왕에 유죄를 선고하노라” 』

“일본 국왕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전쟁 때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전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오는 12월 7~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2000년 법정·<한겨레> ’99년 6월 9일치 20면 보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2000년 법정 한국위원회(위원장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최근 사할린·남태평양·중국 등에서 해외 조사활동을 편 데 이어,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재녹취·분류하고 있다. 또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쪽 검사로 선임됐고, 조시현 성신여대 교수가 기소장 초안을 작성 중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위안부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도 윤정옥 위원장 등 12명이 참여해 북한·일본 등 8개국 대표들과

토론을 벌이고 각국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는 28~29일 서울 이화여대에서는 홍익대·성신여대 등 우리나라 대학생 300여 명과 일본 대학생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이 열릴 예정이다. 학생법정은 2000년법정에 참가하는 아시아 6개 피해국과 일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준비된 행사다. "특히 학생들이 일본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을 이어갈 주체라는 점에서 학생법정의 의의는 매우 크다." (양미강 정대협 총무)

2000년 법정이 실제 국제전범재판 절차를 따르는 반면, 학생법정은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패기를 살리는 모의재판 형식으로 꾸며진다. 28일 오후 5시 개막식과, 연극 '돌격 천황하사품 1호' 공연에 이어 29일 오전 10시 법정이 열린다. 법정은 위안부 강제동원자·위안소 관리자 등 직접 가해자와 피해 실태를 다루고, 천황제를 전범자로 기소해 일본 정부와 군부의 책임을 따진다. 피해자들을 50년 동안 침묵하게 한, 우리의 미흡했던 과거사 청산도 문제삼는다.

모의법정인 만큼 대사 틈틈이 녹취한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려주고 영상물을 상영해 극적 효과도 높인다. 각계각층 시민이 내놓은 유·무죄 의견을 들은 다음, 오후 2시30분 최종 판결을 내린다. 폐막식에선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어울리고, 참가 학생들의 결의를 모두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동마당을 펼친다.

학생법정에 앞서 15일 여는 공개세미나에선 학생들이 △일본의 천황·천황제 △우리 안의 파시즘 △무력갈등과 여성 폭력 △매매춘과 일본군 성노예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난해 1월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계기로 대학생 10여명은 자발적으로 정대협 산하에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위원장 정은정·25)를 꾸린 뒤, 1년4개월 남짓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며 법정 시나리오 등을 구성해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donga.com/ [정치] 2000.05.03 (수) 15:56

『여대생들이 법정에 세운 '일본군 위안부 전범』』

대학생들이 1년 여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29일 일왕 히로히토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전범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에 세웠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생법정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대학생, 일본학생, 시민단체 회원, 변호사, 외국인 등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이날 법정은 총 3회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회기에는 위안부를 모집한 일본인과

그를 도와준 친일파 한국인을 피고로,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 '조선녀' (83세)를 원고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조선녀 할머니 역할을 한 김주혜양(홍익대학교 4년)은 "16살 때 저 녀들의 꼬임으로 위안부로 끌려가 상상도 못할 성폭력을 당했다"고 울부짖으며 열연, 관객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다.

결국 위안부 징집에 공조한 일본인과 친일파 한국인은 각각 징역 15년, 8년을 구형 받았으며, 이들의 전재산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전액 몰수되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일왕 히로히토를 재판하는 2회기 법정.

히로히토 변호인 측은 "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은 말도 안된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사측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일본정부의 개입사실이 명확한 만큼 당시 최고 수뇌였던 일왕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학생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숨죽임속에 히로히토에 대한 판결은 '사형 및 천황 칭호 박탈'로 선고되었다. 한 일본학생은 "히로히토 천황이 성노예 제도를 시행한 것은 대죄"라고 말해 관객들과의 한마음을 이루었다.

마지막 3회기 법정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2의 폭력'을 가한 '한국 남성'을 피고로 세웠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를 평생 '화냥년'이라 욕하고 구타를 일삼으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

이 남편에게 '가부장제 특별법' (가칭)에 의거, '평생 입을 열 수 없게 하고 기본적인 생존 외의 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선고가 내려져 관객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법정이 끝난 후 법정을 진지하게 지켜보던 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관객들이 한 마음으로 기립한 가운데 무대로 올라섰다.

이 중 황금주 할머니는 "일본은 사죄하라"고 말하고 "사죄하기 싫으면 내 19세 청춘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여 관객을 엄숙하게 만들었다.

한편 법정 하루 전 날인 28일에는 '학생법정 개막 선언'과 함께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소개, 영상물 상영, 연극 공연 등으로 전야제의 분위기를 톡톡히 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에서 학생들은 '눈물까지 흘리는' 열연을 보여주어 관객들을 무대로 몰입하게 했다.

연극이 끝나자, 한 일본학생은 누구보다도 힘껏 박수를 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측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우리 문제라 여기며 행사를 준비해왔다"며 "오는 12월 동경에서 열릴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희정/동아닷컴 기자 huibong@donga.com

한겨레신문/ [사회] 2000.04.26 (수) 01:08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에 대해 두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과는 크게 엇갈린 인식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발간된 연세대 영자월간지 4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동안 연세대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제침략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9.5%(495명)가 당시 한국지도층에 있다'고 대답한 반면, '당시 일본 지도층에 있다'고 답한 학생은 13.1% (13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여년 전인 지난 '89년 연세대생 1,000명을 상대로 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44.4%의 학생들이 '당시 일본의 지도층'을, 42.1%가 '당시 한국의 지도층'을 꼽았었다.

또, '89년에는 70% 가량의 학생들이 일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만이 부정적이라 답했고, 21%가 긍정적, 53.2%가 그저 그렇다고 답해 10여 년 사이 일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이 크게 변했음을 나타냈다.

반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6일 발표한 일본의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의 10~30대 일본인 2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59.4%(123명)가 '일본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대답해 과거 제국주의 정책과 전쟁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72.9%(151명)가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성노예였다'고 대답했으며, '종군위안부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일본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는 대답도 각각 78%(162명)와 70.5%(146명)나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양미강 총무는 "최근 일본사회가 보수우익화 되고 있는데 반해 젊은 층이 이런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고 말했다. 이춘재·서정민 기자 cjlee@hani.co.kr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으로 할머니에게 정의와 명예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김운옥·지은희)는 200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북한,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피해국 6개국 및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게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인권법정으로, 남북한 공동의 힘으로, 아시아의 힘으로, 세계 NGO의 힘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법정 참가단 모집"

2000년 법정은 세계에서 1000여 명이 모여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50명의 참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2000년 법정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정대협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고미령 간사)

"2000년 법정 재정마련 후원자 모집"

국제적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의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2000년 법정 지지문을 만들어서 신문광고에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할머니들을 더욱 당당하게 해드립니다.

후원계좌: 조흥은행 308-04-760110 (예금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화 : (02)365-4016, 392-5252 / 팩스 : (02)365-4017

URL : 정대협 홈페이지(witness.peacenet.or.kr)

2000년 법정 홈페이지(www.tribunal2000.org)



“일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하자”

정대협 등 관련단체 국회청원, 이미경 의원 등 소개에 나서



▲ 지난 4일 수요시위에 참석한 미국 위안부 관련 소송 변호인단. 뒷줄 왼쪽부터 김기준, 베리 피셔 변호사, (한 사람 건너) 정연진 미주성신대문제대책위원회 서부지역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 한태호 변호사.

▶ 지난 30일 서울 명동에서 정대협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민원기 기자>

국회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회청원에 나서는 등 위안부 문제에 국내의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 의회에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고, 일본 정부를 상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선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이번엔 김원웅, 이미경, 이부영, 장영달 의원 등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4개 단체들의 일본군 위안부·징용문제에 대한 국회청원에 소개의원으로 나서 힘을 가세했다.

이들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그리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미국 정부의 특별조사단에

한국정부가 관련전문가를 파견해 공조할 것 등의 청원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방한중인 미국내 위안부·징용 관련 소송 담당 변호인단(베리 피셔, 김기준, 한태호, 장완익 변호사)이 이날 참석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내 소송이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 정부, 국회, 사회단체, 학계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이길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日 위안부만행 단죄한다”

‘도쿄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한국대표 220명 참가

“지금도 가끔 꿈 속에서 일본군 병사들의 절대 성화를 거부하다 군화 발길을 견디지 못해 도망갔다가 붙잡혀 매 맞는 장면이 가늠됨을 당해 잠을 깨곤 합니다.”

지난 42년 일본군에 의해 15세의 꽃다운 나이에 군대위안부로 끌려가 3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은 문필귀(75·강서구 동촌동) 할머니는 일본과의 이 가나인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문할머니는 7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참여해 만천하에 일본군의 만행을 증인,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관계를 끌어내기 위해 4일 오전 대한항공(KAL)편에 몸을 실었다.

민간차원 첫 책임 촉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恨)과 삶의 용어들이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일본군 전범 국제법정’에서 풀릴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제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국제인권법정. 아시아 피해국들이 연합해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청사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법정은 남북한, 중국, 대만 등 8개 아시아 피해국과 일본 등 모두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1000여 명의 세계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24명, 8명의 검사단, 학생법정에 참여했던 학생 40여명 등 모두 220여명이 참가한다.

전문판사단 6명이 판결

이번 행사는 법정, 국제공청회, 문화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우선 도쿄 구단회관에서 8일부터 5일간 열리는 법정에서는 위안부를 대신해 각국 검사단이 일본의 히로히토(裕仁·89년 사망) 천황 등 전범들을 고소한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 전범재판에 참여했던 커크 맥도널드와 국제법 전문가 크리스틴 친킨 등 판사단 6명이 고소장과 위안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심리와 판결을 내린다. 11일에는 ‘무력강점하의 여성폭력’을 주

제로 한 국제공청회, 9일부터 11일까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비디오 상영과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저스티스 2000 아시아 페스티벌’ 등이 준비돼 있다.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9년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위안부 문제 협력을 통해 10년만에 공동 기소장 작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남북간에 팩스 등을 이용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완성된 200여쪽의 공동 기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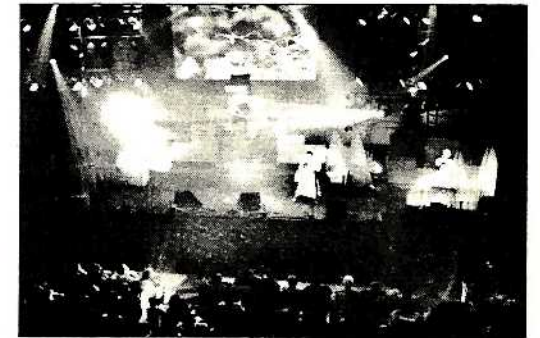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은 수년동안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98년 12월 ‘2000년 법정을 위한 한국위원회’를 발족해 사할린, 오키나와 등 3곳에 대한 현지

조사작업을 마쳤다. 또 기소장에 반영하기 위해 40여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추가 증언 녹취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국제법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해왔고 각종 심포지엄과 문화행사도 개최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정대협등 2년여간 준비

지난달 29일 아시아 7개국과 프랑스, 독일 인권단체들은 각국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대 수요시위를 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처럼 2000년 국제법정이 세계인의 관심 속에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단죄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65년 한·일조약으로 모든 과거는 청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충남기자>



‘정신대 피해’ 연극 정신대대책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정신대 관련 연극을 상연했다. <곽성호기자>

“사죄·배상 받아내 인권회복”

정대협 김윤옥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윤옥(金允玉·62·사진)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진상 규명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법적 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쟁당시 성노예 범죄에 대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 인간으로서의 명예회복과 존엄성을 회복하지는 못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번 국제법정은 시민법정이자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주체가 돼 열리는 ‘여성법정’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8개국 검사단을 꾸리고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판사들이 일본 정부의 잘못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법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대표는 이어 “위안부 제도를 만든 나라의 수도에서 범죄국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해 이번 행사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찾아 주고 그들의 인권회복을 온세계에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동티모르에서...과테말라에서...부룬디에서...

지구촌 곳곳 되풀이되는 성범죄 고발

■ '도쿄 성노예법정' 표정

11일 2000년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모인 피해자와 참가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며 성범죄에 대해 국가와 인종을 넘어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근 무력갈등 등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과테말라 부룬디 동티모르 오키나와 소말리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등 14개국에서 온 여성들이 차례로 성범죄를 고발했다. 이들이 증언을 하는 동안 증언석과 객석 곳곳에서는 숨죽인 흐느낌이 이어졌다.



성범죄 눈물의 증언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일환으로 11일 열린 최근 무력갈등 아래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에서 동티모르의 프란시스코 수아레스가 지난해 가을 민병대에 끌려가 지속적인 강간을 당한 사실을 증언하며 흐느끼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각국 피해자 연대 다짐

과테말라의 올란다 아골라 우리다는 "16살 때 노조에 찬성한다는 죄로 끌려가 묶인채 20여명에 강간과 구타를 당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내 위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 무력감과 고통으로 삶의 의지가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났다는 것이 고통스러워 한때 시력을 잃기도 했지만 시력을 털어놓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게 된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동티모르에서 온 프란시스코 소아레스는 지난해 9월 남편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민병대에 끌려가 강간을 당했던 기억을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흐느꼈다.

몇몇 여성은 얼굴을 감춘채 스크린 뒤에서 증언했다. 부룬디의 19살 소녀는 지난해 겨울 후부족 반군에게 끌려가 수없는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그들은 '너희 종족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너한테 보복하겠다'고 했다. 며칠만에 풀려나 정부쪽에 갔지만 다시 정부군 병사 두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그는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윤금이씨 사례도 소개

또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다 지금은 자신이나 다른 소녀들

이 당했던 폭력이 미군 주둔의 산물이며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깨달았다는 오키나와 소녀, 동두천의 기지촌에서 92년 미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된 윤금이씨, 99년에 희생된 차금신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성 정의를 위한 여성회의'의 바히다 나이나는 "일본군 성노예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전세계 무력갈등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실상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문화를 강화해왔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도쿄/박민희minggu@hani.co.kr

2000. 12. 12(화) 한겨레

위안부 동원 국제법 위반



도쿄 '여성 국제전범 법정' 판결

"히로히토(裕仁·사망)일왕과 일본 정부가 유죄임을 밝힌다." 12일 낮 12시 일본군의 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여성 국제전범 법정'이 열린 도쿄(東京) 일본청년관.

가브리엘 맥도널드(여)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자 각국 검사단과 1천여명의 방청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고 박수 소리는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일부 군 위안부들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히토는 인간의 노예화·고문·살인·인종 차별을 비롯한 인도(人道)에 관한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비록 민간 법정이지만 아시아에서 진행된 전시 성폭력을 둘러싸고 국제관습법으로 정죄된 인도에 관한 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히로히토의 유죄 근거로 두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그가 단순한 권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육·해군상의 보급을 받고 정책 결정을 내린 최고 통수권자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문서와 증언에 미뤄 일본군에 의한 '난징(南京)사건'과 위안소 설치에 대해 그가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동원, 마치 군수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강간을 자행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비준·가입했던 인신매매 금지조약·강제노동금지 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왔으며, 국제법의 정의에 비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개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전시 성폭력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군위안부 출신인 북한의 김영숙 할머니가 지지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12일 도쿄의 국제여성 전범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도쿄 AP=연]

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위안부 관련 정보 공개 및 조사, 위안부에 대한 교과서 기술 등 8개의 권고안을 냈다.

군 위안부 피해자인 문필기 할머니는 "일왕 유죄 판결로 마음의 응어리가 다소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법정에서 각국 검사단은 히로히토를 비롯한 25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결문은 내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공표된다. 도쿄=오영환·남윤호 특파원 <oyh99@red.an.egg.or.jp>

판결문 요지

잔학행위 목인 人道主義 위배

◇인도에 대한 죄=히로히토 일왕은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하들에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전쟁 진행과정에서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었다.

또 그는 위안소 설치나 난징대 학살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강간·폭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그는 위안부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

평화협정 체결했다고 책임 회피할 수 없어

그럼에도 그는 이같은 잔학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신의 도적으로 목인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 책임=일본은 1907년의 헤이그조약, 30년의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조약, 26년의 인신매매금지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

또 전후 일본이 위안부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도 헤이그조약에 정면 위배된다.

전후 일본은 미국·한국 등 여러나라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두고 이들 국가가 일본의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한 책임회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0. 12. 13(수) 중앙일보

일 전범 입국금지법 '있으나마나'

정부, 97년 개정된 명단도 파악못해

정부가 3년 전 일제 전범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놓고도 단 한 차례도 적용하지 않아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관련기사 5면 미국의 경우 일본 전범 수백명에 대해 입국을 규제하고 있고, 일본 도쿄에서는 지금 시민단체들에 의해 일제시대의 '성노예법 국제법정'이 열려 상징적으로나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경우 일

제 전범에 대해 모호시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일제 전범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관련 명단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 조항 때문에 입국을 금지당한 일본인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상태로는 일제에 복

무한 전범이 우리 나라에 출입국을 한 적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앞으로도 조항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직원도 "일제 전범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당한 일본인은 여럿만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법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국무성이 치밀한 조사를 거쳐 일제 전범 500~600명

의 명단을 확보하고 실제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 7항은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여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전인 97년 12월13일 법개정 때 추가한 것으로 당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규정이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전담조사반을 편성해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군 전쟁범죄 관련자의 입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입국심사부에 설치돼 운용중인 전담반은 4급 5급, 7급 직원 1명씩 모두 3명뿐인데다 그나마 고우업무가 따로 있어 관련자 자료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제 전범 명단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대책협의회도 있으나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충희 기자 symbio@hani.co.kr

미 연방대법 오늘 최종판결

부시측 청원 수용될 사실상 당선 확정

[워싱턴=윤국환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 선거 표들을 재검표하도록 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청원에 대해 심리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연방 대법원은 12일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시한을 감안해 12일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청원을 받아들여 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면 부시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다.

반면 연방 대법원이 옳고여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플로리다주 의회가 선거에 개입하게 돼 상황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주 의회 상·하원은 이날 각각 특별위원회를 열고 부시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들은 12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별도의 선거인단 지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gookhan@hani.co.kr



잃어버린 핸드폰? 핸드폰찾기 컴퓨터
주요 핸드폰을 무료로 찾아주세요!
www.handphone.or.kr

2000. 12. 13(수) 한겨레

"위안부 피해 증언 아직도 온몸이 떨린다"

국제법정 수석검사 퍼트리샤 셀러 "남북한 공동기소 인상적"



"모든 나라의 기소가 훌륭했지만 남북한 공동기소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팔려 갈 당시에 남북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남북은 하나다. 그래서 분단이라는 현실을 넘은 이번 기소가 당연하고도 뜻깊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막을 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의 공동 수석검사인 미국의 퍼트리샤 셀러는 최종기소를 마친 뒤 이런 소감을 밝혔다. 이 기소는 '일본 국왕과 일본 정부는 유죄'라는 판결로 이어졌다.

그는 유고와 르완다 국제성범죄전범법정 검사단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오랫동안 주도적인 활동을 해왔다.

"나 자신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전쟁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문제이자 민족문제이며 평화

라는 주제와도 관련된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7월에 처음으로 이 법정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8개국 피해 여성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 마음이 끌려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검사석에 앉아 이번 재판의 증인들을 낱낱이 검토한 그는 "증인들이 나를 짓눌러 아직도 마음이 떨린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 이들을 끌고 갔다. 심지어 12살짜리 어린이들까지 성노예가 됐다. 또 이런 행위에 내무장관, 육군장관, 각 부대의 사령관들이 체계적으로 가담했으며, 그 체계의 절정에는 일본 국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법정은 여성인권사와 인권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힘이 돼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 사회적인 여론,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 피해국이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2000. 12. 19(화) 한겨레



전쟁 성폭력근절 새 장 열었다

'일왕 유죄' 이끌어낸 완전한 승소
법적구속력 없지만 관련재판 잦아들듯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군부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 봉수관자였던 히로히토 일왕과 각 지역 군사령관들에게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려주시요. 또 일본 정부에도 이들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부적의 책임을 물어주시요."
경사의 기소에 대한 관사단의 대답은 'Yes'였다.

7일 일본 동경에서 개막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12일 일왕 유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판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관사단이 경사의 기소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인 완전한 승소인 셈이다.

법정 셋째 날인 지난 10일 동경 구판판에서는 3일간 진행된 남부한·중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네팔·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9개국 관사단의 기소와 피해자 증인 후 국제법정사단의 최종기소문이 발표되었다.

수사나 증인 등 경사는 '일본군대의 성노예제는 일본 정부의 체계적인 승인과 묵인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인도에 반한 죄와 강간을 금지한 헤이그협약, 노예금지 조약, II.O 강제노동금지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소요지를 발표했다. 이어 파트리스 셀러스 검사는 '감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나쁜 말만 할 수 없었다. 일본군 안에 있었는데 내가 이들을 갈 수 있었는가'라는 한 위안부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는 항상 이 있고 감금되어 있어



▲ 지난 12일 동경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 일왕 유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조영진)

이란 감금이었다. 그들은 영혼이 감금되어 있었다. 만약 그들이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좀 사살했을 것이다. 노예화에는 자발적인 동의란 있을 수 없다. 각 지역 위안소 운영에 깊이 개입한 군사령관들은 물론, 이들을 교사·방조한 히로히토 일왕에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최후 진술을 마지막 객석의 참가자들은 그에게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

관사단은 11일 하루 휴정을 선언하고 검사단의 논고를 심리한 후 12일 일본 청년단으로 자리를 옮겨 판결 요약문을 발표했다. 관사단은 이날 내리지 피고인 군사령관들에 대한 판결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최종판결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현재 위안부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배리 피셔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국제법정판결을 지켜보면서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세계 각국의 NGO가 모여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6일간 열린 이번 법정에는 9개국의 전 일본군 위안부 80여명과 관계자 등 400여명의 참가단과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의 취재진 300여 명이 몰려 1천1백석 규모의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정작 당시지인 일본 정부는 법정 출두 요구를 무시했고, 일부 언론은 제외한 일본 언론의 반응도 냉담했다.

(동경·김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관련기사 4, 5, 8면

2000. 12. 22(금) 여성신문

"이제 평안히 잠드소서"

위안부할머니 추모회 및 2000년 국제법정 보고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는 지난 해 1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추모회를 열었다.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머니들의 명복을 기리며 영정에 분향했다.

지난해만도 김옥주, 김경자, 이영숙, 천봉순, 하순녀, 조남례, 김영례, 오오목, 전계순, 문명금 할머니 등 10명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정부에 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된 총 199명 중 57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생존해 있다. 특히 이번 추모회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성공을 기념해 국제법정 참가단의 보고회도 겸했다.

(사진: 민원기 기자)

2001. 1. 12(금) 여성신문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은례(오른쪽·한국 출신) 씨와 광금노(북한 출신) 씨가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여성법정'에서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흐느끼고 있다. 헤이그/AP 연합

“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하라”

국제민간법정

[헤이그=AP 연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진범 국제여성법정'이 일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여성법정은 2차대전 중 일본과 싸운 연합국 쪽에 대해 위안부에 관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히로히토 전 일왕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정은 일본 안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1차 개최된 바 있다.

이 법정은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옛유고 전법법정 수석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맥도널드 판사는 총 24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설치되고 관리·유지·조장됐다”며 “고도로 통제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위안소가 철조망으로 둘러

싸인 채 무장경비병의 순찰 보호를 받았으며 일부 여성은 동굴에 임시로 만들어진 위안소에서 군표를 사서 차례를 기다린 군인들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난 56년 동안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은 연합국 쪽과 유엔이 일본에 대해 과오를 자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2001. 12. 6(목) 한겨레

‘위안부 가해자’ 국제적 인정 日정부 사과-배상 압박



헤이그AP연합
일제강점기 군위안부로 곤욕을 치른 김은례 할머니가 4일 여성국제전범법정 판결 직후 헤이그의 루스트 공연장에 마련된 재판소에서 판결문을 내보이며 취재진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피해자 78명 참석 만행증언

▽경과=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8~12일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한 최종 결론. 당시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는 8개 피해국 검사단 40명이 히로히토(裕仁) 전 천황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군위안부 관련자 25명을 기소했다.

이 법정에는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78명을 비롯한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1944년 미얀마 국경에서 임신한 채 발견됐던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78)가 자신의 성노예 체험을 증언했으며 일본군으로 복무하며 위안소를 찾았던 한 일본인(80)이 처음으로 증언해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법정은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유고 국제전범법정 재판장이 수석판사를 맡는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로 구

성됐으며 이들은 1년간에 걸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의미와 전망=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정에서 다뤄져 가해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선 패전 직후 미군 주도로 열린 도쿄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졌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한번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특히 히로히토 전 천황은 어떤 전쟁범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자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

여성국제전범법정 유죄 판결

4일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쟁범죄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위안부 피해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사법적 강제성이 없는 민간법정에서 나왔지만 향후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국가들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우선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 최종 판결 보고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富市) 총리 때 민간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시켜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정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 등 관련국들이 강력히 반발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분쟁지역 성폭력에 경종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기구들은 이같은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입법 조치를 통한 개인배상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2001. 12. 6(목) 동아일보

여론마당

김윤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유죄와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던 '사실의 인정' 판결에 뒤이은 것으로 전범자 9명의 유죄를 선고하는 최종판결이 완성된 것이다. 9명은 관동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 남방총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 필리핀 총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 중국사령관 하타 슈로쿠 등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며 '위안부' 체제를 확장 강화했던 책임자들이다.

이들에게 법정은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

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은 이를 묵과, 은폐,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연합국은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며, 일본이 완전히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91년 8월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힘을 배경으로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에서 시작된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10년 후 평화의 도시 헤이그에서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획득했다. 할머니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또 그들은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판결문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 정의를

마침내 正義의 판결이 내려졌다

— '일본군 성노예전범' 재판을 보고

정부가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 생존자에게 배상을 거부함으로써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즉, 그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의 설치, 교과서에 위안부문제를 기록하고 교육할 것,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이다.

특히 피해국 생존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일본측의 '국민기금'에 대해 배상의 대신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선언한 것은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쉼표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극동군사재판에서 연합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미 극동 군사재판시 위안소 관련문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할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 정의와 평화에 기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최종 판결에는 피해국 12개국에서 원고 '위안부' 생존자 12명과 지원단체 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도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희생자 보상대책위원회(총태위)' 황호남 서기장을 포함한 6명이 참가했다. 정대협 대표들은 이들과 협의를 갖고 앞으로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법정의 판결이행을 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주최측이 제안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박수로 통과시키며 아프간의 고통받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연대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이정표가 된 것이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 역은이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한국위원회
- 펴낸곳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발행일 • 2001년 12월 26일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 전화 • 02-365-4016
- 전송 • 02-365-4017
- 전자메일 • mssjdh@lycos.co.kr
- 홈페이지 • www.k-comfortwomen.com
- 인쇄 • 광고기획 훈길